

文學碩士 學位論文

67

함안 성산산성 出土 木簡 연구

慶州大學校 大學院

文化財學科

權 炳 璇

2008年 12月

함안성산산성 出土木簡 연구

指導教授 姜 奉 遠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8年 12月

慶州大學校 大學院

文化財學科

權 炳 璇

權炳璇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김 창 호 

審査委員 임 영 애 

審査委員 강 병 진 

慶州大學校 大學院

2008年 12月

목 차

I. 서론.....	1
II. 목간조사와 현황.....	3
III. 목간의 제작검토.....	11
IV. 목간의 내용.....	15
1. 목간의 판독.....	15
2. 목간의 내용.....	18
V. 목간의 성격.....	33
1. 연대.....	33
2. 용도.....	34
VI. 결론.....	39
참고문헌.....	41
사진	46
〈별첨〉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 판독문 일람표.....	52
Abstract.....	67

〈사진목차〉

사진 1. 성산산성 조사 원경.....	46
사진 2. 유구 분포도.....	46
사진 3. 목간집중출토지점 하부의 울타리 시설.....	46
사진 4. 목간집중출토지점 북벽 토층.....	46
사진 5. 목간집중출토지점 Ⅱ 층.....	47
사진 6. 구멍을 피한 묵서.....	47
사진 7. 30번 목간.....	47
사진 8. 안압지 출토목간.....	48
사진 9. 월성해자 출토목간.....	48
사진 10. 등원궁 출토목간.....	48
사진 11. 29번 목간.....	48
사진 12. 썰자 목간.....	49
사진 13. 負자로 읽히는 글자들.....	49
사진 14. 함안 목간.....	50
사진 15. 57번 목간.....	50
사진 16. 냉수리비에서 확인되는 알 수 없는 글자.....	50
사진 17. 함안목간의 추정 사용법.....	51
사진 18. 함안목간의 묵서 방식.....	51

I. 서론

목간은 제작되고 난 다음에 침삭이 가해지지 않은 동시대의 자료이기 때문에 사료로서는 가장 유용한 일차자료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문헌사료의 경우 『삼국사기』는 기록된 내용보다 많은 시간이 지나서 후대에 편찬되었기 때문에 의도적이지 않았더라도 편찬 당시의 역사관에서 벗어나기 어려웠고, 『일본서기』 또한 국가의 역사관에 따라 편찬된 것으로 위작의 가능성이 늘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목간은 대부분 그때그때의 사무 처리나 주술을 목적¹⁾으로 제작되었다가 목적이 다하면 폐기되었기 때문에 정치적 목적²⁾을 가지고 과거를 기록하여 후세에 남기려는 여타의 역사서와는 다른 당시대의 생생한 자료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³⁾.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 목간의 출토수가 현저히 적었다. 경주 안압지, 월성해자, 황남동, 박물관 부지를 비롯하여 익산 미륵사지, 부여 관북리, 쌍북리 하남 이성산성, 창원 다호리 등에서 발굴되었으나 경주 안압지(107점)와 능산리(24점)를 제외하면 출토량이 적어서 과거의 복원재료로서 문헌이나 금석문에 비해서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다가 특히 1992년 함안 성산산성에서 발굴된 목간이 발굴되었으며 이어서 2002년 성 동문지(城東門址) 안쪽에서 명문목간(銘文木簡)이 목재유기물(木材有機物)과 함께 발굴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목간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시작 되었다. 이들 명문목간에 의해 목간의 시기는 561년경⁴⁾으로 용도는 하찰(荷札)목간으로 파악되었으며 현재는 연대와 편년이 거의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목간의 집중 출토지와 성벽축조시기의 연관성을 고고학적 발굴성과를 근거로 검토해보고, 고신라 금석문의 특수한 문자

- 1) 鎗野和己, 2004, 「日本 古代의 木簡」, 『한국의 고대목간』 P405
- 2) 정치적 목적을 지닌 편찬 자료로는 『『일본서기』』나 『『삼국사기』』를 들 수 있겠다. 그리고 일급사료지만 광개토왕비문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자료에 해당한다.
- 3) 鎗野和己, 2004, 「日本古代의 木簡」 『한국의 고대목간』, p. 406.
- 4) 平川南, 2003, 「古代地方木簡의 研究」 吉川弘文館
李成市, 2005, 「朝鮮의 文書行政-6세기의 신라-」 『文字와 古代日本』, 吉川弘文館
이용현, 2001, 「함안성산산성 출토목간에 대한 종합적 고찰」 『한국고대목간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이용현, 2004, 「함안성산산성 출토목간」 『한국의 고대목간』,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와 외위형성과정 등에 의거해서 목간의 제작 연대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그리고 용도에 대해서는 목간의 형태와 제작방법 그리고 기재된 내용 등의 제(諸)요소들로 부터 함안성산산성출토목간(이하 함안목간)이 하찰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목간의 내용을 분석하면서 논점이 되고 있는 몇 가지 글자에 대해서는 그 당시 사용되었던 이두식 표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필자 나름의 해석에 의거해서 고신라 인명표기법의 또 다른 방법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파악해 보았다.

향후 본 논고가 함안목간의 성격파악을 재조명 하는데 다소의 도움이 라도 되었으면 하는 것이 필자의 바람이다.

II. 목간조사와 현황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30여 년간 14개소의 유적에서 총 342점의 목간이 출토되었고 그 중 목서목간은 248점에 이르고 있으며 시기적으로는 6세기 초에서 8세기까지로 연대를 비정하고 있다. 신라목간은 월성해자와 안압지에서 출토된 목간에 의하여 궁중생활의 단면을 볼 수 있고, 백제는 신라에 비해서 출토수가 적지만 도성의 구획과 수전개발상황을 밝힐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1990년 하남 이성산성에서 6-7세기의 연대로 비정되는 목간이 발굴되어 지방까지 문서에 의한 행정이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그 수가 29점이며 목서목간이 13점에 불과하고 신라목간으로 당시 신라의 확장범위 이외에는 특별하게 주목 받을 만한 요소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2년 후인 1992년 함안성산성에서 목간이 발굴되고 2007년까지 238점의 목간이 발굴되면서 한국에서도 목간은 큰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현재까지 한반도에서 발굴 조사하여 얻은 목간자료를 정리하면 <표1과 같다.

<표 1> 한국고대목간의 출토현황⁵⁾(2004년 4월 현재)

목간출토유적(발굴연도)	목간연대	목간 수 (목서)	비고
부여 능산리(2000-2002)	백제 6세기초반	24(20)	削層, 觚(文書)
부여 관북리(1983-2003)	백제 7세기	12(10)	木簡廢棄行程
부여 쌍북리(1998)	백제 7세기	2(2)	唐尺
부여 궁남지(1995-2001)	백제 7세기	11(3)	觚(習書)
함안 성산산성(1992-2003)	신라 6세기중반	113(94)	題籤軸
하남 이성산성(1990-2000)	신라 6-7세기	29(13)	觚(文書)
경주 월성해자(1984-1985)	신라 6-7세기	34(29)	觚(文書)
경주 황복사지(1942)	신라 706년	□	竹簡(佛經)
경주 안압지(1975)	신라 8세기	107(69)	觚(6面墨書)
경주 박물관부지(1998)	신라 8세기	4(2)	
경주 황남동376(1994)	신라 8세기	3(3)	
김해 봉황대(2000)	신라	1(3)	(論語)
익산 미륵사지(1980)	신라	2(2)	觚
합계 14개 유적		342(248)	觚 12점 이상

5)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4, 『韓國의 古代木簡』, p.359.

본 논문에서는 함안의 성산산성에서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발굴 조사된 238점에 대해서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함안 성산산성(咸安 城山山城, 사적 제 67호)은 경상남도 함안지역에 위치하는 아라가야의 중심지로 가야시대를 대표하는 유적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이 산성은 가야읍에서 남쪽으로 약 2.5Km 떨어진 해발 139m의 조남산(鳥南山)에 축조된 둘레 약 1.4Km에 이르는 삼국시대의 석축산성(石築山城)⁶⁾으로 알려져 있다(사진 17). 함안 성산산성의 주변에는 도항리 · 말산리 고분군(사적 제84, 85호) 등 대형고분이 인접하고 있어 이른바 아라가야의 정치 및 군사적 주요 거점으로 추정되어 왔다⁸⁾.

성산산성에 관한 문헌기록은 『함주지(咸州誌)』 1587년 고적 조에 기록되어 있는 아래의 기록이 유일하다.

「伽倻國舊墟 在郡北五里許城山之上周回四千三百八十三尺 至今城基宛然降慶己巳 張侯範建書院于比 今移琴川」

아라(阿羅)에 관한 기록은 『삼국사기』 권 제 34(잡지 제3)에 法興王以大兵滅阿尸良國(一云阿那加耶)이 보인다, 또 『『일본서기』(日本書紀)』 권19, 흠명천황(欽明天皇) 22년(561)조에 「.....古新羅築城於阿羅波斯山以備日本」이란 기록이 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성산산성은 가야의 성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발굴 결과는 신라의 성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고고학적 발굴성파에 의한 규명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

함안 성산산성의 발굴조사는 1992년부터 2007년까지 12차에 걸쳐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에서 연차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산성은 퇴피식이고 내외(內外)협축식 석성(石城)이며 외벽 기저부(外壁 基底部)를 삼각형형태의 구조물을 형성하여 보강하고 있다. 이러한 축조방식은 보은 삼년산성, 문경 고모산성, 경주 명활산성 등에서 공통으로 보이는 신라석성의 기본적 축조방법으로 신라와 관련된 6세기의 산성⁹⁾으로 보고되고 있다¹⁰⁾.

6) 삼국시대의 석축산성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 성과는 극히 미약하여 대부분 『삼국사기』 등 문헌에 기반을 둔 연대 비정을 하고 있다.

7)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07, 함안성산산성 12차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집, 사진 1, p.2.

8)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1998, 『함안 성산산성』 태양상사, 서울.

9) 고고학적 연구 성과가 미약하고 『삼국사기』 『일본서기』 등 문헌에 기반을 둔 것이 많은 듯 하여 아직도 고고학적으로 6세기 신라성에 대한 연대비정은 쉽지 않아서 유보적이다.

그리고 산성의 내부(사진 2)에서는 고대의 문자자료가 목간(古代木簡) 형태로 발굴되어 이에 대해 국내외 학계에서 다양한 연구 자료들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2007년의 조사에 의하여 목간의 출토지는 지금까지 알려진 저습지나 자연퇴적층이 아니고 한 시점(時点)에 형성된 인위적(人爲的)인 구조물로 밝혀졌다. 그리고 목간은 지금까지 1992년 12개의 발굴을 시작으로 2007년까지 11점의 제첩축(題籤軸)¹¹⁾과 함께 총 238점이 발굴되었다(표 2 참조).

〈표 2〉 함안 성산산성 출토목간 수량(2007년 11월 현재)

	1992년	1994년	2000년	2002년	2003년	2006년	2007년	계(점)
이면목서	0	4	0	13	0	12	29	58
일면목서	4	16	1	56	1	15	39	132
무문	2	1	1	16	0	12	5	37
제첩축				7		1	3	11
점수	6	21	2	92	1	40	76	238
총계	제첩축 포함 총238점(목서목간 총 190점)							

목간이 출토된 출토지에 대한 조사는 2005년까지는 산성성벽내부의 저수지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2006년부터 2007년까지의 발굴조사에서 성벽 하부의 성벽축조를 위한 기반토(基盤土)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식물 유기체와 함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¹²⁾(도면1). 이 목간 출토지의 토층양상은 모두 4개 층인 4층(32-29), 3층(28-7), 2층(6층), 1층(5-1)으로 구분 되고, 목간 출토지 아래로 점토층이 형성되며 그 아래로 암반층이 최하층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발굴조사 결과 확인되었다. 따라서 층서적으로 볼 때 동성벽보다 목간출토지의 축조시기가 빠르므로 동성벽 축조

10)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7, 「함안 성산산성 제12차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집」.

11) 제첩축(題籤軸)은 한국에서는 함안성산산성에서 처음으로 발견 되었으며 문서의 양이 방대 하여 문서를 분류하여 쉽게 찾도록 하는 도구이다. 문서의 제목을 卷軸에 기록하여 문서의 標識로 사용한 것으로 두루마리 종이로 만든 문서가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촌별로 적장류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수취를 하였다. 함안 목간 중 58은 墨書 흔적이 있는 제첩축이다. 利豆村으로 보는 경우(윤선태, 2004, 「한국고대목간의 출토와 현황」 『한국의 고대목간』, p. 364.)가 있지만 알 수 없는 글자로 본다.

12)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07, 함안성산산성 12차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집, p. 2-5.

이전에 목간집중출토지가 조성되었고 시간적으로 성벽축조보다 목간의 폐기시점이 빠르기 때문에 목간의 사용시기가 석성의 축조 보다 당연히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층위에 따른 목간의 출토량을 살펴보면 <표3> 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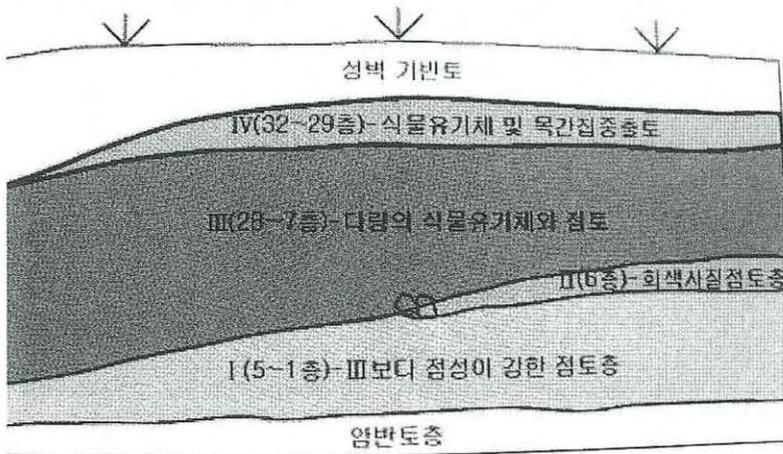
<표 3> 2006-2007년(11. 26. 기준)층위별 유물출토현황¹³⁾

	층위	목간	제철축	목기류	동물유기체	식물 유기체	모발	금속
층 위 출 토 수 량	1			5				
	2			4	1		1	
	3			14	4			
	4	1	1	67	9	5		
	5	4	1	98	15	6		
	7	7		95	14	8		2
	8	4	1	125	10	11		2
	9	2		22		3		
	10			5		2		
	11	2		13	1			1
	12	1		3	1	1		
	13	3		5		1		
	15	1		72	4	5		
	16			3				
	17			8	2	1		
	18			42		2		
	19		1	13				
	20	2	1	20		3		
	22	2		19	1	1		
	23			15		2		
	24	1		1				
	25	7		6				
	26			1				
	27	2		3				
	28			16		1	1	
	29	15		36		3		
	30	29		12				
	31	5	1	10		1		
	32	14		37		1		
	합계	102	6	770	62	57	2	5

목간출토지의 토층과 출토양상을 층위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층은 점토가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으며 목기류와 동식물 유기체가

13)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7, 「함안 성산산성 제12차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집」, p. 6.

출토되고 점토층은 점성이 강하여 단단하게 형성되어 있다. 2층은 회색사질점토층이 한 층 깔려 있고 유물이 출토되지 않는다. 3층은 유물과 식물유기체가 혼합되어 있다. 3층 내에서도 각기 다른 퇴적물이 부분적으로 집중되어 있고 유물이나 동식물유기체를 폐기한 후 그 위로 초분류를 깔고 그 위에 잔돌을 깔고 점토 덩어리(塊)를 바른 흔적이 나타난다. 4층은 목간이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층인데 <표3과 같이 29-32층에서 주로 출토되고 있다.



도면1. 퇴적양산 모식도(남벽기준) 2007, 함안성산산성 제12차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집, p 5 국립가야문화재 연구소,

목간이 출토된 지점은 저수지와 동벽사이의 공간으로 동성벽과 직교되어 계곡을 가로막는 길이10m, 폭20m의 범위이다. 목간이 집중적으로 동시에 폐기된 흔적과 함께 에 의해서 형성된 안압지나 월성해자 등의 목간출토지에서 보이는 자연퇴적과는 다르게 조성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 인공구조물로 밝혀지고 있다. 그 인위적인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식물의 유기체가 퇴적된 층위의 단면에서 가운데 부분이 블록하게 올라와 있는 점과 각 퇴적층의 사이에 3~5cm 두께로 점토층이 형성되어 있는 점 그리고 층별로 한 종류의 퇴적물이 집중되어 있는 경향 등은 자연스러운 퇴적 상태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목간출토지 아래의

회색점토층에서는 퇴적이 이루어진 방향과 반대쪽인 서쪽으로 기울어진 울타리와 같은 목주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목주(木柱)는 기반토의 상층에 위치하는 최종저수지의 목주방향과는 반대방향이어서 주목 된다¹⁴⁾(사진 3. 4. 5). 이러한 사실들에 의거하여 목간 출토 지는 견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층간에 점토층을 첨가해가며 쌓은 인공적인 구지(丘地)로 보인다.

그러면 왜 이러한 인공구조물을 만들었는지 의문이 간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간행한 보고서¹⁵⁾에 의하면 성벽을 축조해야 할 위치는 물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물과 강한 유속(流速)이 일어나 성벽을 붕괴시킬 수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벽축조 이전에 다량의 식물유기물을 쌓고 그 상부에 점토를 다져서 구지를 형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식물유기물을 쌓은 이유는 유기물이 스펀지처럼 물을 흡수하기 때문으로 이것을 백제의 부엽공법(浮葉工法)¹⁶⁾과 연결시키고 있다¹⁷⁾.

그러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산성이 붕괴될 정도의 유수량과 유속이 형성되려면 산성의 면적이 넓어야 많은 유수량이 확보되어 그 에너지로 성벽에 손상을 줄 정도가 되고 위치 또한 정상부가 아닌 산의 하부에 위치해야 중력(重力)에 의한 유속이 강하게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사진 1)에서 볼 수 있듯이 산성이 위치하는 곳이 정상부근이므로 강한 유속이 일어날 수 없고, 성의 면적이 크지 않기 때문에 유수량(流水量)이 그리 많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한꺼번에 많은 수량과 빠른 유속에 의한 성벽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면 부엽공법은 적당하지 않다. 부엽공법은 스펀지처럼 천천히 물을 흡수하여 독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폭우와 같이 많은 양에 의한 빠른 유속에 대응

14)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07, 함안성산산성 12차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집, p.4.

15) 이성준, 2007, 「함안 성산산성 목간집중출토지 발굴조사 성과-발굴조사 방법 및 유적의 성격을 중심으로-」, 『함안성산산성출토목간의의』,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16) 성벽이나 제방, 도로 등을 만들 때, 나뭇가지와 잎을 깔고 그 위에 흙을 덮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하여 쌓았던 방식을 말한다. 이 같은 공법은 고대 중국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한반도를 거쳐 일본으로 전해졌다. ‘부엽공법은 일본의 댐식 저수지인 사야아미케(616년경)에서 처음으로 발굴되었고 국내에서는 풍납토성, 부여 나성, 김제 벽골제 등지에서 부분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小山田宏-2002)

17) 이성준, 2007, 「함안성산산성 목간집중 출토지 발굴조사 성과-발굴조사 방법 및 유적의 성격을 중심으로-」 『함안성산산성 출토목간』 p 131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하기에 부적합하다. 더욱이 사이사이에 물 흡수가 어려운 점토띠가 형성되어 있고 목간집중 출토지점(부엽층) 상부를 점토로 다진 점토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속에 대비해 성벽을 보호할 목적으로 성벽의 전반부에 솟아오른 기반토를 조성하게 되면 이 구조물의 안쪽에 많은 물이 저장되고 조금씩 누수가 될 경우 배수구가 없는 성 하부는 장시간 물이 스며드는 상태가 되어 오히려 성벽에 심각한 손상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겨울철에 빗물이나 눈에 의하여 부엽층에 물이 고였다가 성벽에 물이 스며들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게 되면 성벽으로 스며든 물은 결빙되어 늘어난 부피로 인해 성벽이 붕괴될 위험에 처하게 되므로 물이 부엽층으로 스며들게 축조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오히려 부엽층상부의 점토 다짐을 한 것으로 보아 물이 부엽층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 누수나 결빙으로부터 성벽을 보호하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부엽층 하부와 평행하거나 그 아래의 지점에 출수구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부엽층보다 상부쪽에 출수구가 배치된 것으로 보아 동문지 쪽으로 모인 물은 부엽층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인공구지표면을 따라 출수구로 배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으로 보아 부엽층, 즉 목간집중 출토지를 성벽축조를 위한 부엽공법으로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필자는 목간집중 출토지의 중앙부위가 (사진 4)처럼 올라온 부자연스러운 퇴적양상, (사진 5)처럼 자연퇴적방향과 반대로 넘어져 있는 목책의 방향, 동일한 퇴적물로 이루어진 퇴적층의 사이를 점토층으로 강화 시킨 점 등을 근거로 볼 때, 이 목간출토지의 조성은 성벽과의 직접적인 관계보다는 산성의 축조 이전에 형성되어 있던 구조물을 축조할 때 부엽공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기초를 다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 하며 이때 목간이 식물유기체와 함께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산성의 축조시기와 목간 출토지를 직접적으로 연관시키는 것은 재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목간의 내용물 성으로의 공진물이나 성의 유지 및 보수와 연결시키기는 많은 연구들은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¹⁸⁾. 왜냐하면 층위상으로 목

18) 이성시, 2000, 「한국목간연구의 현황과 함안성산산성출토의 목간」 『한국고대사연구』 19, 한국고대사학회, 서경문화사,
이용현, 2004, 「함안 성산산성 출토목간과 6세기 신라의 지방경영」 『동원학술논문집』,

간 출토지는 성곽의 축조보다 그 조성시기가 빠르기 때문이며 출토지의 목간이 사용되던 시점에서는 성이 축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주보돈, 2000, 「함안성산성출토목간의 기초적 검토」 『한국고대사연구』 19, 한국고대사학회, 서경문화사,

Ⅲ. 목간의 제작검토

목간은 기본적으로 나무로 제작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나무로 제작되었는가를 검토하여 보는 것은 목간의 내용 못지않게 중요하다. 아울러 이것을 좀더 체계적으로 연구하면 목간을 제작할 당시의 자연환경과 그에 따른 특정 나무의 서식지를 알 수 있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목간의 제작지 파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듯이 목간제작에 사용된 나무는 소나무가 주를 이루고 있어 목간의 수종 파악과 제작지와의 연계는 쉽지 않을 수 있다.

본장에서는 목간의 성격파악에 유용한 제작기법을 위주로 파악해보고자 한다. 목간의 제작과 관련하여 목간의 수종, 제작기법, 목간의 제작지, 묵서방법, 목간의 형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표 4〉 함안 성산산성 출토목간 수종분석¹⁹⁾

수종	수량	수종	수량	수종	수량
소나무	108	버드나무	7	느티나무	2
상수리나무	9	굴피나무	5	오리나무	2
밤나무	9	산뽕나무	4	서어나무	1
산벚나무	7	전나무	3	활엽수	5

목간으로 사용된 수종을 알기 위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여러 종류의 나무가 사용된 것으로 판명되었고 그 중에 소나무가 절대 다수임을 박상진²⁰⁾이 밝혔다(표 4참고).

목간의 제작기법에 대해서 기존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하시모토 시게루²¹⁾는 목간에 수(樹)나 수피(樹皮)가 남아 있는 것을 들어 직경 2-3cm의 작은 나뭇가지로 제작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묵서면(墨書面)과 반대쪽에서 구멍을 뚫은 62번은 목간제작자가 서사면(書寫面)을 생각하고 제작한 흔적이 있고, 때때로 다듬어진 바깥쪽이 아니라 거친

19)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04, 「함안성산산성 출토목간의 연구 흐름과 과제」, 『함안성산산성 출토목간의 의의』, p. 41.

20) 박상진, 2000, 「출토목간의 재질분석-함안성산산성 출토목간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19, 서경문화사.

21) 橋本繁, 2004, 「함안성산산성목간의 제작기법」 『함안성산산성출토 목간 자료집』,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안쪽에 목서가 된 41, 43, 50, 79번 목간은 제작자와 서사자(書寫者)가 각기 달랐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목간을 어느 정도까지는 한꺼번에 만든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하단부에 구멍이 있는 28호 목간(사진6)과 같이 구멍을 피해서 쓴 것은 최소한 구멍을 뚫은 후에 문자를 쓴 것으로 파악하고 30번 목간은 절입부에 목서되어 있으므로 최소한 목서한 다음에 묶은 것으로 파악 하였다(사진7).

목간의 서체에 대한 연구성과를 살펴보면 손환일²²⁾은 함안목간은 신라금석문의 서체와 비슷하고 고구려의 영향이 깊으며 서체는 해서(楷書)나 행서(行書)를 사용하던 시대로 보았고, 고광의²³⁾는 중국 남조풍의 행서와 적성비의 서체와 비슷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주보돈²⁴⁾, 이경섭²⁵⁾, 이용현²⁶⁾등은 필체가 동일하다는 견해를 펴력하고 있다.

목간의 제작지에 관해서 살펴보면 성산산성 동문지 부근의 내부 저습지에서는 미완성의 목재가 발견되고 제품을 만들 때 버려지는 치목편(治木片)들이 두텁게 압착되어 있으며 미완성목간 한 점²⁷⁾, 소형 붓과 도자²⁸⁾가 수습 되었고 동일한 목간(12 · 44번, 3 · 34번, 69 · 70번, 13 · 41번)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함안 목간이 출토지에서 제작 되었음을 알려주는 증거가 된다. 만약 물품생산지나 출발지에서 목간이 제작 되었다면 제작지가 목간의 출토지에서 발견되지 않을 것이고 2개의 동일목간을 만들어 함안으로 보내었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글씨체도 동일한 양상(적성비의 서체)을 띠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현지 제작설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로 볼 수 있다²⁹⁾. 그리고 수종분석을 한 박상진은 목간을 만든 당시 대량으로 필요하여 한꺼번에 만들어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몇 개씩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아 현지(출

22) 손환일, 2004, 「함안성산산성 출토 목간의 서체에 대한 고찰」, 『한국의 고대목간』, p. 380.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3) 고광의, 2007, 「6-7세기 한국고대목간의 서체」, 『한국고대목간과 고대동아시아세계의 문화교류』, 한국목간학회 제1회 국제학술대회.

24) 주보돈, 2000, 「함안 성산산성출토목간의 기초적 검토」 『한국고대사연구』 19, p. 52.

25) 이경섭, 2005, 「함안 성산산성 목간의 연구현황과 과제」 『신라문화』 23, pp. 125-126.

26) 이용현, 2004, 「함안 성산산성 출토목간과 6세기 신라의 지방경영」 『동원학술논문집』 5, pp. 335-337.

27)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4, 『함안 성산산성Ⅱ』, p. 210

28) 글자의 오기를 지우거나 재활용하기 위해 목간을 다듬는 소형칼.

29) 박종익, 「함안산성 출토목간과 성격」 『함안 성산산성 출토목간』, p. 174.

토지) 제작의 가능성을 더 높여준다³⁰⁾.

함안 목간의 형태에서 보면 절입부(節入部)를 가지고 있으며 절입부에 묶은 흔적 (사진 10 45, 48번 목간)이 발견되어 목간을 묶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일반적인 묶기홈이 있는 목간과는 달리 반대쪽에 절입부가 위치하고 있다. 사진으로 살펴보면 왼쪽은 함안목간이고 오른쪽 사진은 일반적인 묶기홈을 가진 안압지 출토 목간³¹⁾(사진 8)인데 함안목간은 아래쪽에 안압지출토목간은 위쪽에 절입부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절입부(이하 묶기홈)를 하부에 가지고 있는 목간을 찾아보면, 한국에서는 안압지에서 출토된 목간(사진8)이 1점 있고, 월성해자에서 출토된 목간(사진9) 2점³²⁾이 있는데 그 용도를 짐작하기 어렵다. 중국에서 출토된 하부에 절입부를 가진 목간³³⁾은 아베소이치로³⁴⁾가 중국의 니아에서 출토된 한문간독 중에서 후한대(後漢代) ~ 진대(晉代) 시기³⁵⁾의 목간을 소개하고 있는데 내용은 안부편지 즉, 선물과 함께 안부 인사를 전해 드린다는 치간(致間)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일본의 예는 목간³⁶⁾ 중 등

30) 박종익, 2007 「함안 성산산성 발굴조사와 출토목간의 성격」 『함안 성산산성출토목간』, p.174

31) 안압지에서 출토된 3면목서목간 229번 奉太子君-이 있다.

32) 월성해자에서 출토된 목간 중 173번 問干板卅五, 174번 字口作□이 있다.

33) 윤재경, 2004, 「중국의 竹·木簡」 『한국의 고대목간』 pp 392,393 국립장원문화재연구소. 에서 보면, 중국의 목간 중에서 눈여겨 볼 것은 갈(檣)이다. 같은 오늘날 화물의 꼬리표와 유사한 것으로 한국과 일본에서 발굴된 하찰목간과 흡사한데, 크게 2가지 형식으로 나뉜다. 첫째는 등글게 깎은 상단부에 물품을 담은 상자나 바구니에 갈을 끈으로 묶기 위해 구멍을 뚫어 놓은 것이다. 두 번째 형태는 상단부 또는 하단부를 삼각형 또는 반원형으로 깎고, 바로 아래 부분의 양 측면을 요(凹)자형 또는 삼각형의 홈을 낸 상태로서 갈을 꽂아 두거나 끈으로 묶어 두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주로 진대(晉代)의 묘장에서 발굴되고 진대의 니아(尼雅)묘장에서 발굴된 갈 중에는 살아 있는 자가 죽은 묘주에게 바치는 부장품명(琅玕)과 묘주에게 안부를 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남창시의 東晉시대 묘에서 발굴된 갈에는 오늘날의 명함과 유사한 관직명. 지명. 성명. 연령. 字 등이 기록되어 있다. 아울러 갈에는 봉검과 함께 상자에 붙어 출토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 봉검에는 물품수신인의 주소, 이름, 우송방식 등이 기록되고, 갈에는 상자에 담긴 물품 명칭이나 수량이 기록된다.

34) 安部聰一郎, 2007, 「중국출토간독과의 비교연구 - 尼雅출토 한문간독을 중심으로」 『함안 성산산성 출토목간의 의의』,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35) 니아목간의 연대는 진대(샤반)와 후한대(왕국유)의 2가지 견해가 있다.

36) 登野和己, 2007, 「일본 고대의 목간」 『한국의 고대목간』 p.404를 보면 일본의 최고의 목간은 7세기 전반 경의 것이다. 물건에 묶어서 장거리로 이동하는 경우나 집 바깥에 붙여두는 주술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고, 12세기 이후로는 나무의 견고성을 이용한 하찰용으로, 9세기 이전은 상대에게 의사전달용으로 사용하였다. 도성이나 사원에서 발굴되고 일반 취락에서는 발굴되지 않는다. 출토된 목간을 보면 710년의 것으로 평성궁출토목간 48000점, 평성경 13만점이 발굴되었다.

원궁 유적 출토목간(사진10)과 주부목간으로 도교적인 별자리와 글이 쓰여 있는 목간³⁷⁾이 있는데 이들 목간도 홈이 하부에 있다. 이와 같이 절입부가 하부에 있는 목간을 찾아본 결과 그 용도가 제각기 달랐으며 그 용도는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목간의 제작 분석 결과로 목간의 제작자와 서사자가 다르고 출토지에서 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증거들, 그리고 각각 다른 지명이 기록되었으나 글씨체가 동일한 양상, 절입부가 하부에 있는 목간의 용도가 제각기 다르고 특정한 용도로 사용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면 함안목간의 용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하찰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할 본 논문의 ‘함안목간의 용도’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37) 김창석, 2008, 「大阪桑津유적 출토 百濟系 木簡의 용도」, 『文字와 木簡』 창간호, p. 226.

IV. 목간의 내용

1. 목간의 판독

고대의 금석문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문자를 판독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작업임은 당연하다. 글자 한자를 잘못 판독하여 금석문 전체 혹은 고대사연구에 많은 오도된 정보의 과급을 초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4년까지 출토된 총 122점의 목간 중에서 목서목간 95점은 2007년 12월 발간한 함안 성산산성 출토목간에 실려 있으며 『한국의 고대목간』³⁸⁾에 실린 함안목간의 도록으로 분석이 가능하였다. 한국의 고대목간에 실린 도록으로 상세한 분석을 시도하여 기존의 해석과 달리 볼 수 있는 것을 파악하였으며 선학들의 견해와 필자의 해독결과는 본 논문의 마지막에 별첨하였다. 본장에서는 2006년³⁹⁾과 2007년⁴⁰⁾ 출토 목간은 정식보고서는 발간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도위원회의 자료에 실린 것을 실었으며 필자의 분석은 시도할 수 없었다. 2004년까지 목간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사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번목간 : 仇利伐 上多者村 / 乞利⁴¹⁾.

2번목간 : 甘文城下麥 甘文本波 王□/□□村□利兮負. 2006년 목간의 발견으로 幾가 아니고 麥으로 파악하는 것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검토가 필요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麥으로 한다. 負자는 일반적으로 행서체나 초서체의 負자로 판독되는 2, 36, 37, 38번과 乃人으로도 읽히는 6, 33, 35번의 목간, 해서체로 된 완형의 負자를 이루고 있는 57번과 알 수 없는 글자로 볼 수도 있는 17번이 있다. 이처럼 3가지 이상의 판독이 되고 있어 負자는 앞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3번목간 : 仇利伐上多者村波婁. 상삼자촌과 파루의 글씨체가 서로 다르다. 이것은 상삼자촌을 쓰고 난 다음 다른 사람에 의하여 파루가 부가된 것으로 보인다⁴²⁾. 3번과 다음에 살펴볼 9번 목간으로는 제작 속도를 중

38)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4, 『한국의 고대목간』.

39)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6, 「함안 성산산성 11차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

40)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7, 「함안 성산산성 제12차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

41) 1번 목간부터 27번 목간까지는 1992-1994년까지 출토된 유물로 국립김해박물관 소장품이다.

요시했음을 알 수 있다.

4번목간 : 仇利伐仇陀一伐/忒利□一伐. 보고서에는 후면의 一伐은 알 수 없는 글자로 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하지만 여기에서는 一伐로 한다.

5번목간 : 仇利伐□德知一伐奴人□. □字를 소금鹽자로 보는 견해(이경섭, 이수훈, 이용현 등)가 있으나 보고서처럼 여기에서는 모르는 글자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소금鹽으로는 읽기가 어려워 보인다⁴³.

6번목간 : 完松鳥多伊伐支□負支. □을 走(이수훈, 전덕재) 혹은 乞(이용현)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는 글자로 보고자 한다. 負는 乃人(고대목간)⁴⁴으로 보기도 한다. 같은 양식의 負자는 33번과 35번이 있다.

7번목간 : 仇利干好□村鬼尸稗石. □를 尸(이경섭, 전덕재) 혹은 部(보고서, 고대목간)로도 보지만 모르는 글자로 보고자 한다.

8번목간 : (及)伐(城)(秀)刀□稗. □을 巴(보고서, 이경섭, 이수훈, 전덕재, 고대목간)로 판독하지만 알 수 없는 글자로 본다. 刀는 乃(보고서, 이수훈, 이경섭, 이용현)로 보기도 하지만 刀가 정확하다.

9번목간 : 竹尸□乎.于√支稗一. 尸자는 모르는 글자로 하고 √에 대해서 이용현은 수정한 것으로 파악하면서 그 증거로 창녕비의 예를 들었다. 轉倒符가 있는데 이것은 수정을 가한 흔적이다. 이러한 것은 창녕비에서도 보인다. 즉 16행 12자 本의 우측상단에 작게 干을 써넣은 예가 확인된다.

16번목간 : 言斯只□. 一石(이경섭), 혹은 元으로 판독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元으로 파악하였다.

17번목간 : 前谷村阿足支□. □을 負로 본다(전덕재, 이수훈은).

20번목간 : 古陀伊骨利村(那)/仇乃支稗(麥). 麥인지 깊은 관찰이 필요하지만 여기에서는 선학들의 연구에 의하여 麥으로 보고자 한다. 28번 목간과 같은 글자이다.

23번목간 : (爐.知)上千支, 知로 파악한다.

28번목간 : 古陀伊骨利村阿那衆智卜利古支/稗麥. 發(고대목간, 이경섭,

42) 이용현, 2007, 「한국출토목간의 세계」 『함안성산산성출토목간』,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pp. 230-231.

43) 목간의 해석에서 보고서란 2007년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발간한 『함안 성산산성 출토목간』에 실린 보고서 1을 말하고, () 속의 인명은 이 보고서에 판독을 실은 선학명을 일컫는다.

44) 여기서의 고대목간이란 2004년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에서 발간한 『한국의 고대목간』을 말한다.

이용현)과 麥(전덕재, 고대목간(개)⁴⁵)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것은 麥으로 파악되는 20번과 그 형태가 같기 때문에 麥으로 파악하기로 한다.

29번목간 : 古陀新村智利知一尺村/豆兮利智稗石. 一尺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一尺의 경우는 유일한 예에 속하고 尺 자도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은 높다. 一石으로 분명하게 되어 있으므로 石이 一石이라는 것은 근거가 없다⁴⁶(사진 14).

30번목간 : 夷(津)支阿那□□只豆支/稗. 只를 대부분의 선학이나 보고서가 모르는 것으로 하고 있지만 글자가 흠 부위까지 다다라 목서를 작게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只가 분명하다.

33번목간 : 仇利伐彤谷村仇礼支負. 負가 마지막이 되는 목간의 인명 앞에는 奴 혹은 奴人이 쓰여 있지만 이 목간에는 없다. 2006-27, 2007-53, 57도 같은 형식이다. 36번도 같은 형식일 가능성이 있다.

34번목간 : 仇利伐上彡者村波婁. 3번 목간과 같다.

35번목간 : 內恩知奴人居助知負. 6번, 33번과 같은 負이다. 33번과 비교해 보면 奴人은 內恩知에 속함을 알 수 있다.

36번목간 : (乃.仇利伐)只(즉)智奴於□支負. 2, 38번 목간과 같은 負이다.

41번목간: 玆城巴兮支稗. 城은 확인이 잘 안되지만 선학들의 교시로 여기서는 城으로 한다,

44번목간 : 上(幕.谷)乃村居利支稗. 幕은 『한국의 고대목간』에서, 그 외에는 谷으로 파악하지만 필자는 모르는 것으로 한다.

47번목간 : 可初智□須麥石. 麥으로 보기 힘들고 2007년 30번의 麥과는 다르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사진 15).

53번목간 : 大村主航主人의 主人은 2007년 30번 목간과 같다. 따라서 主人으로 보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여기서는 航은 仇로 파악하고 主人은 麥으로 판독한다(사진 15번).

57번목간 : 弘帝沒利負. 완전하게 파악되는 負자 이다. 33, 57, 2006-27, 2007-53과 같이 인명 뒤에 負가 있지만 人名 앞에 奴人 혹은 奴가 없다(사진16). 앞의 弘帝利負와는 조금 떨어져 있으며 해서체로 쓰여서 완전하게 파악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분류한 구리별 목간으로 파

45)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2006년7월에 편찬한 한국의 고대목간 개정판을 말한다.

46) 橋本 繁, 2007, 「함안산성 발굴조사와 출토목간의 성격」 『함안성산산성 출토목간의 의미』 p170,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악될 수 있다.

58번목간: 유일하게 묵서흔적이 있는 제침축이며 利豆村으로 보는 경우(윤선태)가 있지만 알 수 없는 글자로 본다(사진 17).

59번목간 : □蜜白私/利乃文□支稗. □는 石으로 볼 수 있다. 石蜜은 바위에 벌집을 짓고 만든 꿀을 말한다. 그러나 蜜白私는 인명일 가능성이 높다. □를 轔으로 보기는 힘들고 알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60번목간 : 巴珎兮城下□/巴珎兮村. □은 麥일 가능성이 있다.

61+75+90번목간 : 乃節□家□夫□鄒(只.尺)□/□稗石. 52, 16, 17, 18, 43에서 볼 때 尺으로 보다는 只에 가깝다고 판단 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只로 파악 한다.

70번목간 : 千竹利. 69번과 같은 내용이다.

72번목간 : □一伐稗

73번목간 : (一)伐稗石. 一은 확인되지 않는다.

79번목간 : 伊伐支□利□稗一로 해독하지만 거의 판독이 되지 않는다. 목간9, 94의 稗一도 재고의 여지가 있다.

95 · 45번목간 : 夷津阿那休智稗. 夷津은 판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르는 글자로 한다.

2. 목간의 내용

함안성산산성에서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발굴된 총 238점의 목간 중에서 묵서목간은 190점이고 이 중 2004년까지 발굴된 명문목간은 92점이 발굴되었다. 2006년, 2007년도 합해서 92점이 발굴되어 총 184개의 명문목간이 발굴되었다. 본장에서는 이들 184점의 명문 목간에서 지명(地名), 인명(人名), 물품명(物品名)이 확인되는 목간(171점)을 분류하였다. 이중 지명, 인명, 물품이 함께 쓰인 것으로 보이는 목간이 64점, 지명이 쓰인 목간이 117점, 물품명이 있는 목간이 89점, 수량만 표기된 목간이 5점이며 그리고 파손된 목간을 제외하면 전 목간에서 인명이 나타난다(표 5). 기본적인 함안목간의 양식은 지명(地名), 인명(人名), 관등명(官等名), 물품명(物品名), 수량(數量)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고신라 인명표기(古新羅 人名表記)의 방식인 직명(職名), 부명(部名), 인명(人名), 관등명(官等名)의 순이다. 그러나 함안목간에서 직명(職名)이 있는 목간

은 한 점도 발견되지 않았다. 본장에서는 함안목간에 나타나는 내용 (〈표5〉 참고)을 지명, 관동명, 인명, 물품명 그리고 구리벌목간으로 나누어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표5〉 성산산성목간의 분류

목간번호	지명	인명	물품명	비고
구리벌목간				
1	仇利伐 上多者村	乞利		
3	仇利伐 上多者村	波婁		
34	仇利伐 上多者村	波婁		
33	仇利伐 肪谷村		仇礼支 負	
2006-2 7	(仇利伐) 甘文村		借刀利支 負	
2007-1 8	仇利伐 衫伐只(村) /		同伐支 負	
2007-5 3	仇利伐 習肪村 /		毛利支 負	
4	仇利伐	仇陲支 一伐 余利□支 (一伐)		
5	仇利伐	□德知 一伐 奴人□		
2007-8		仇(陲)□ 一伐 奴人	毛利支 負	
2007-2 7	仇利伐	郝豆智 奴人 /	□支 負	
2007-3 1	仇利伐	仇陲知 一伐 奴人	毛利支 負	
36	仇利伐	只卽智 奴	於非支 負	
2006-1 0	(仇利伐)	□ 奴	□□支 負	
2006-2 4	仇利伐	比夕須 奴	先能支 負	
2006-3 1	(仇利伐)	…兮 /	吉西支 負	
07-6	仇利伐	那□小奴 /	你□□尸	
2007-5 5	仇利伐		今称次 負	
2007-2 0	仇(利伐)	□□□□□□		
2	甘文城下麥 甘文本波 / □□村		王□/□利兮 負	
2006-3	古陲伊骨村阿那 / 仇	支稗(姜)		

0	利伐			
35		內恩知 奴人 居助知 負		
17	前谷村		阿足支□ 負	
37		內只次 奴 須礼支 負		
38		比(多)須 奴 尔先利支 負		
2007-1 3		眞尔□ 奴 (鄒)智石		
57			弘帝沒利 負	
2007-4 1			□卽□□ / 居利 負	
지명 · 인명 · 물품명이 있는 목간				
20	古陀 伊骨利村(那)	/仇乃支/	稗(麥)	
28	古陀 伊骨利村阿那	□智 卜利古支/	稗 麥 . 發	
31	古陀 一古利村末(那)	/尸智	稗石	
2007-1 1	古陀 一古利村末那	/ (弥□)利夫	稗石	
2007-1 4	古陀 一古利村末那	仇□□ /	稗石	
2007-1 7	古陀 一古利村末那	/ 乃兮支	稗石	
2007-2 5	古陀 一古利村阿那	弥伊□□ /	稗石	
2007-3 3	古陀 一古利村末那	沙見 / 曰糸利	稗石	
29	古陀 新村	智利知 (一尺)(那村)/ 豆兮利智	稗石	
2007-1 0	古陀 新村	(阿)鄒(那)利 / 沙□		
2007-2 9	古陀 密村	沙毛 /	稗石	
20	古陀 伊骨利村(那)/	仇乃支	稗(麥)	
28	古陀 伊骨利村阿那	衆智卜利古支/	稗 麥 . 發	
31	古陀 一古利村末(那)/	毛(□,羅眉)次尸智	稗石	
55	古陀	□□□□	稗石	
7	仇利 干好□村	鬼尸	稗石	
52	仇伐 阿(那)	□只	稗石	
2007-1 2	仇伐 支鳥村	札	稗石	
2007-1 9	赤伐 支村	次(稗□)支		
2007-5 4	赤伐 支谷村	男尺支	稗	

2007-4 6	小伊伐 支村	能毛礼 /	稗石	
39	鄒文 比尸河村	余利牟利		
54	鄒文 □□村	□牟□		
2007-5 2	鄒文(前)那牟只村 /	伊(利眉)		
2006-1 7	鄒文村	内且利(魚)		
2006-1	甘文城下麦牟波 大村	毛利只 /	一石	
2007-4 5	甘文城下□ 大村	石(喙□)卜只次(待)□	米十一 升	
10	甘文本波□村 且利村	利竹伊 □		
65	甘文	尔□□ / 阿□□□		
2007-4 4	夷津支城下麦 王智巴玆 兮村	/ 玆次	二石	
2007-T 304	夷津支城 鳥村	一智巴 / □□		
8	(及)伐(城)	(秀)刀□	稗. □	
42	及伐城	□□	稗石	
74	及伐城	只知	稗石	
80	及伐城	□□	稗石	
2007-2 3	及伐城	文尸伊尸		
2007-2 4	及伐城	文尸伊鳥伐只	稗石	
2007-4 2	及伐城	登奴	稗石	
13	陳城	□兮支	稗	
41	陳城	(巴)兮支	稗	
2007- 28	力夫支城	夫酒只 /	稗 一 石	
2007- 40	力夫支城	□□支	稗一	
2006- 12	好(思)(城)	六入		
2007- 7	丘伐		稗	
2007- 48	丘伐		稗石	
2007- 15	勿思伐	豆只	稗 一 石	
2007- 伐	伐	□	稗	

49				
11	鳥欣彌村	卜兮	稗石	
12	上□乃村	居利支	稗	
44	上(幕,谷)乃村	居利支	稗	
14	大村	伊息知 一伐		
21	屈仇(仄)村	(完)□/	稗石	
32	上□刀珍村/	加古乃□	稗石	
40	阿卜智村	余礼(及余,及,得一)		
43	陽村	□(尸尸)只		
2006-6	陽村	文尸只	稗	
46	□□	鄒波□□支		
53	大村	主仇	麥	
61		乃節□家□夫□鄒(只,尺)□/□	稗石	
62	支村	/□	稗石	
85	伊失兮村			하부과손
60	巴珍兮城下□ /村	巴珍兮	□(麥)	
15	家村	□□□		
78	村	登尔支		
200-5	…村□	天支	石	
06-3	阿利只村	□(阿)□□ / 古十□□刀□□□(門)		
06-7	買谷村	古光斯□于 /	稗石	
06-8	勿利村	(仇)蓋珍利支 /	稗石	
06-9	次次支村	知珍留 /	稗石	
06-32	□□利村	□□	稗石	
06-37	村	()□	麦石	
07-26	□□□村	古尸□	稗石	
07-30	夷財支(末那□)石村	末支下(仇) /	麦	
07-34	伊夫兮村		稗石	
07-35	礼彡利村 /	一合只	稗石	
07-36	栗村		稗石	
07-38	末□□□村	□ /	稗石	
07-39	眞村		稗石	
07-50	一□□力村	□文□□ / 仇□□		
07-56	□□且村	今部□牵者足(利)		
07-57	古随牵破 豆□村	□□□ / 勿大兮		
07-58	□□支村	□□礼 /	稗	
07-61	買谷村	物礼利 / 斯珍于	稗石	
07-64	上弗刀你村 /	敬(新□)古	稗石	

07-A	□智密村	(如)□		
07-D	伊□□□村	□		
06-40	丁廿二益丁四村… / □二□丁十二 村… (4면목간)			
22	夷津支女那	尔利知□		
30	夷津支阿那	古刀羅只豆支/	稗	
45	夷津阿那	休智	稗	
06-4	夷津牟波	只那公末(余)	(稗)	
07-37	仇利阿那	内欣買子 / 一万買	稗石	
77	須伐牟波	居須知		
인명과 물품명이 있는 목간				
9		竹戶□牟干支	稗一	
18		□□□□□支	稗	
24		尔□□		
47		加初智□須	麥石	
48			殂 鉄 十之	상 부 파 손
50		□□□□支	稗石	
56		□□□□□支	稗	
59		石密□智私/□利乃文□支	稗	
63		□□叔予□支/□鄒	稗	
64		小伊伐支人□□/ [] □	稗石	
67		□加礼□□/□刀	稗	
71		□利次	稗石	
72		□□一伐	稗	
73		□伐	稗石	
79		伊伐支□利須	稗	
81		□伊伐支	稗石	
86		密鄒加尔支	石	
94			(稗□) 一	
06-11		器尺	一石	
07-1		…竹然弥支	稗石	
07-22		(阿)盖癸次(利)	稗	
07-43		□□支□只	稗石	
07-47		珎德知(私)仇□	稗石	
07-B			(稗)石	
07-F		□□□□□□ /	稗	
07-I		□□	稗石	
16		□言斯只	二	

07-9		牟(破)破者智伊古舌 / 文(式□)	稗石	
인명만 보이는 목간				
23		知上干支		
68		居珎□乙支		
69		千竹利		
70		千竹利		
76		□未知居兮□		
82		□智支		
83		召□伐□		
84		麻□知		
88		□□□□支□		
89		□于利沙□□		
92		□知支		
06-19		形白女 / 月□□ (다면목간)		
06-35		…支鳥 / …□(沙)(利)		
6		王私鳥多伊伐支□負支		
06-25		王松鳥多伊伐支卜然		
07-4		(阿)盖次余利□余稗德知		
07-16		(阿)盖次(欣)(鄒)(支□)□		
07-21		豆留只(一伐□)		
07-51		□□□□支		
07-T3 70		□□□□□只兮		
07-E		…支負稗		
07-G		牟□		

①지명(地名)

함안목간에 나오는 지명을 살펴보면 촌(村)으로 끝나는 지명, 성(城)으로 끝나는 지명, 아나(阿那)로 끝나는 지명, 말나(末那)로 끝나는 지명, 하맥(下麥)⁴⁷⁾으로 끝나는 지명이 있다. 지명의 끝에 오는 촌, 성, 아나, 말라, 하맥, 본파에 대하여 그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하맥, 본파, 성, 촌은 지명의 범위나 지위를 한정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복수의 지명에서 먼저 기록되는 순서에 따르면 하맥, 본파, 성촌의 순으로 범위가 크거나 행정적 위치가 높을 가능성을 보인다. 예를 들면 2번 목간(甘文城下麥甘文本波王□/新村 □利兮負)의 경우 甘文城下麥은 甘文本波보다 앞서 기재되고, 왜냐하면 10번 목간(甘文本波□村且利村伊竹伊)을 보면 甘文本波가 □村, 新村보다 앞에 기재 되어 있다. 그런데 아나, 말라는 전

47) 전덕재, 2008, 「함안성산산성 목간의 연구현황과 쟁점」 p 25. 2번 목간의 '감문성 하맥을 감문성의 아래의 보리로 파악한 경우도 있다.

혀 규칙성을 보이지 않고있어서 범위나 지위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보인다. 성과 촌은 2007-T304목간(夷津支城鳥村一智巴 / □□)외에는 없으며 2007-T304목간도 2개의 이진지성과 조촌 일지파와 □□가 기재되어 조촌을 이진지성에 예측된 지명으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성을 촌보다 범위가 크거나 상위로 볼 근거는 최소한 함안목간에서는 발견 할 수가 없다. 그리고 하맥, 본파, 아나, 말나는 모두 이두로 짐작되며 그 구체적 의미는 알 수 없다.

그리고 함안목간에 나오는 지명을 현재의 지명으로 그 위치를 찾아보면 『삼국사기』 지리지에 보이는 신라의 尙州지역의 범위 내에서 한정된다. 감문성(甘門城)은 김천시 개령면(開寧面), 하기(下棋)는 안동시 풍산(豊山), 본파(本波)는 경북 성주군 성주, 급벌성(及伐城)은 경북 영주, 구리벌(仇利城)은 충북 옥천 혹은 경북 의성방면, 고타(古陀)는 경북 안동으로 비정되는데 이상은 『삼국사기』 지리지에 의한 것이고, 추문(鄒文)은 적성비(551)에서 보아 죽령 이남의 경북지역으로 의성일원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구리벌의 위치에 대해서 이경섭은 대부분의 목간이 甘文州(上州)에서 제작되었고 仇利伐목간은 比子伐州(下州)의 관할지인 성산산성의 인접지역 즉 마산 창원지역으로 보았는데 이것은 6세기후반의 신라 하주(新羅 下州)의 설치에 관한 기사를 염두에 두고 목간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목간이 현지에서 제작 되었고 이후에 검토할 奴와 負의 성격규명에 의하면 그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또한 지명에 있어 주목할 점은 전부 낙동강 상류와 주변에 위치하는 지역으로 함안과 그 주변지역은 보이지 않는 것은 특이한 점이다.

② 관동명

신라인명의 外位에서 8위에 해당하는 일벌(一伐, 4, 5, 14, 72번)과 9위에 해당하는 일척(一尺, 29번), 6위(位)에 해당하는 상간지(上千支)로 관독될 수 있는 목간(23번)도 발견 되었다. 함안목간에서는 일척(一尺)이 한 개에 불과하여 이때까지는 거의 일벌(一伐)만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으로 함안목간에서 관동은 경위가 보이지 않고 외위도 겨우 생기기 시작하는 단계로 파악된다.

③ 인명

함안 목간에서 인명은 4점(2007-7번 목간과 나머지 3점은 파손된 목간)을 제외하면 모든 목간에서 발견된다. 이처럼 인명이 전반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다른 유적에서 발굴되는 목간에서는 보이지 않는 특징적인 점이다. 안압지 등에서 발굴되어 하찰로 확인되는 목간에는 인명이 기재된 경우가 없어 함안목간과는 대조적이다.

④ 물품명

함안목간은 총 208개로 이 중 목서목간은 165개이고 물품명이 있는 목간은 74개이다. 함안목간에 나타나는 물품명은 稗, 米, 麥, 鐵, 玆次가 있다. 이 중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漈, 米, 麥에 관해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 稗

稗, 稗一, 稗石으로 물품명이 표현된 목간을 漈류목간(漈類木簡)이라 칭한다. 물품명이 있는 74개의 목간 중 漈류목간은 53개 이다. 김창호⁴⁸⁾는 함안목간을 금석문의 고신라 인명표기법에 의하여 신라목간으로 파악하면서 漈류표기(漈類表記)를 신라의 외위명(外位名)으로 파악하고 稗一을 10등급 외위(外位)인 波一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稗一을 波一로 해석하는 것은 2006년과 2007년의 발굴에서 一石과 稗二石(사진11)이 나타남으로 그 근거를 상실하였다. 후보돈은 외위의 이칭(異稱)으로 파악하였다. 그런데 외위의 이칭으로 보기에는 함안목간 이외에는 그 예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근거가 희박하다. 그러므로 漈류목간의 漈(稗)는 관동으로 볼 수는 없고 물품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윤선태⁴⁹⁾는 漈를 관동이 아닌 군량으로 인식하고 산성(山城)에서 출토되기 때문에 말의 사료로 인식 하였다. 그리고 신라 중대(新羅 中代)에 작성된 좌파리가반부속문서(左波里伽盤附屬文書)⁵⁰⁾, 인왕사비(810)에 의하여 들을 뜻하는 石과 양(量)을 뜻하는 石을 구분하면서 稗一石에서 石

48) 김창호, 1998, 「함안 성산산성출토 목간에 대하여」 『함안성산산성』,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49) 윤선태, 1999, 「함안성산산성출토목간의 용도」 『진단학보』 88, 진단학회.

50) 일본 나라 동대사 정창원 소장으로서 통일신라시대 경덕왕 11년 752년 이전의 통일신라시대의 촌락, 공납, 녹봉 등의 실태를 보여주는 문서.

을 생략한 것이 稗一이라 하였다. 그리고 전덕재⁵¹⁾는 부찰(附察)로 파악하여 성산산성에 주둔하던 군인의 식량이나 말의 사료로 파악하고 있다. 이성시⁵²⁾도 물품명으로 보아 군량으로 파악하고 있다. 위와 같은 선행학들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패(稗)는 관등이 아니라는 사실은 밝혀지고 있는 듯하고 패(稗)를 대부분은 군량이나 말의 사료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물품명 중 48번, 2007-30번을 제외하면 패석(稗石)만 나오고 있어서 군량이나 말의 사료로 보는 견해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군량품으로 보기에는 종류가 너무 한정적이고 말의 사료로 보기에는 이 시기의 말의 사료에 대한 검토를 『고려사』에서 찾는 것은 근거가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산산성 주변지역에서 말 사육이나 대규모 기병의 흔적유무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패석(稗石)을 패일석(稗一石)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시기가 너무 차이가 나고, 좌파리의 석(石)은 윗부분이 떨어져 있지만 함안목간에서는 석자(石字) 윗부분이 떨어져 있는 경우는 발견되지 않는다(사진14). 때문에 패석(稗石)을 패일석(稗一石)의 약자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일석(一石)과 이석(二石)의 패류목간이 발굴되었기 때문에 패일석(稗一石)과 패석(稗石)은 패일석(稗一石)으로, 패일석(稗一石)은 패이석(稗二石)으로 볼 수는 없게 되었다. 그리고 패를 말의 사료나 군량으로 보아 성이 축조되고 난 후에 성의 역할을 유지하기 위한 공진물로 보는 것은 고고학적 발굴사실을 놓고 보더라도 무리가 따른다. 목간 출토지가 성이 축조되기 이전에 형성되었고 목간의 사용 시기는 최소한 목간출토지 이전에 해당하므로 목간에 쓰인 패를 성곽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패를 성의 역할이나 유지에 필요한 공진물로 보기는 어렵다.

◎ 米

2007-45번(甘文城下□米十一升石(喙□)大村卜只次(待)□)에 있다. 일본 정창원 문서의 미장국정세장(尾張國正稅帳(天平6년, 734년)에는 ‘稗 伍斛直稻伍拾束 束別一斗’로 쓰여 있고 피를 식량으로 조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쌀은 1개의 목간에서만 출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쌀이

51) 전덕재, 2001, 「신라중고기 결부제의 시행과 그 기능」 『한국고대사연구』 21, 고대사학회.

52) 이성시, 2000, 「한국목간연구의 현황과 함안성산산성출토의 목간」 『한국고대사연구』 19, 고대사학회.

주식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⁵³⁾.

◎ 麥

47번과 2006년에 출토된 37번 그리고 2007년에 출토된 30번을 합쳐서 모두 3개가 있고 세 가지 형식이 있다(사진12).

⑤ 구리벌(仇利伐)목간

본 논문에서는 지명에 구리벌이 있거나 첫 번째 이름이나 관등명 뒤에 노인(奴人) 혹은 노(奴)가 오거나 두 번째 이름 뒤에 부(負)가 오는 경우를 구리벌목간이라 칭한다. 이들 목간은 2명의 인명, 노와부등 다른 모간과는 차별성을 보이고 있으며 함안목간에서 구리벌목은 27점이 이에 해당한다.

◎ 내용

仇利伐을 주보돈과 이용현은 충북 옥천 혹은 경북 의성으로, 윤선태는 경북 북부로, 김창호는 경남 함안으로, 이경섭은 함안 인접지역으로 비정하고 있다. 仇利伐목간은 12개가 출토되었으며 仇利伐, 村名, 人名, 外位, 奴人, 人名. 負의 순으로 되어 있다.

목간에 목서된 奴人에 관한 선학들의 해석을 먼저 살펴보면, 조법종은 전쟁포로에서 그 의미를 구하고 이 개념이 발전하여 범죄자 및 그 가족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했다⁵⁴⁾. 이영훈은 奴는 신하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삼국시대의 奴는 주종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노비제와 같은 신분을 가리키는 奴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파악하였다⁵⁵⁾. 주보돈은 집단적 예속민을 지칭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국가로부터의 국역을 부담한다고 하였다. 특히 봉평비에 의거하여 이들을 집단적 예속민으로 파악 하고자 하였다⁵⁶⁾. 박기종은 奴人과 奴人村은 신라의 영토 확장으로 새로 편입된 영토와 주민을 편재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파악 하였

53) 삼국지위서동이전 고구려 ‘…祀靈星社稷…’이라는 구절로 보아 3세기의 고구려에서는 피를 식량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54) 조법종, 1986, 「한국고대의 노비연구 - 발생과 존재형태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석사학위논문.

55) 이영훈, 2002, 「화랑세기에서의 노와 비 - 삼국시대신분제 재론 -」 『역사학보』 76.

56) 주보돈, 1989, 「울진봉평비와 범흥왕대울령」 『한국고대사연구 - 울진봉평비 신라비 특집호』 2, 한국고대사 연구회

다57). 김재홍은 奴人은 집단을 의미하며 예속민은 아니고 지방민으로 파악하였다58).

함안목간에서 奴人이란 단어가 들어 간 목간은 <표5>에 보이는 것과 같이 구리별목간에서 나타나며 인명 뒤에 바로 기입되거나 一伐관동 다음에 기입되며 또 다른 인명과 負가 뒤따르는 형태이다(표6). 그런데 구리별목간의 해석에서는 두 개의 인명이 함께 기입되는 경우 奴人을 앞의 인명에 연관된 것으로 볼 것인지 뒤의 인명에 붙여서 해석할 것인지가 올바른 해석에 있어서 핵심을 이룬다. 이것은 奴人에 대한 해석과 관련된 것으로 기존의 견해는 奴人을 漢文해석 그대로 사노비나 공노비 혹은 자신을 낮추는 표현59)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구리별목간에서 논란이 되는 노인과 부의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 노인(奴人)

노인의 성격은 노인이 개인적인 사노(私奴)인지, 집단적인 계층(階層)인지에 대한 해석의 문제로, 이것은 글자 그대로 개인적인 신분인지 아니면 집단적인 신분계층으로 볼 때 정복민에 속하는 하층민인지 하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2007년 출토 31번 목간의 예를 들면 ‘仇利伐 仇陘知 一伐 奴人 毛利文 負’에서 仇利伐에서 一伐관동을 가진 仇陘知가 奴卑 毛利文으로 하여금 가져오게 하였다’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즉 奴人을 仇陘知의 인명과 연관시키지 않고 奴卑로 해석해서 毛利文의 인명과 연결시켜 毛利文이 奴人이 되고, 負를 毛利文이 짐을 지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렇게 하면 仇利伐은 部명으로, 仇陘知는 人名으로, 一伐은 관동명으로 일반적인 신라의 인명표기방식을 따르는 것이 된다. 그런데 신라의 인명표기는 관동명이 마지막으로 되기 때문에 奴人이 관동 뒤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 문제이다. 이와 비슷한 경우를 단양 적성비에서도 찾을 수 있다. 단양적성비(이하 적성비)에는 고신라 금석문의 기본적인 구조에 따르면 관동명이 있어야 할 자리에 관동명으로 보기 힘든 단어가 보인다. ‘小女, □子, 女, 小子’이 그것인데 이들은 모두 인명의 뒤에 위치하고 있어 관동명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그런데 신라 외위명(外位

57) 박종기, 2006, 「한국고대의 노인과 部曲」 『한국고대사학회』 6.

58) 김재홍, 2001, 「신라중고기층제의 성립과 지방사회구조」,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59) 奴人이 자신을 낮추는 표현으로 해석되는 경우는 광개토태비문과 모두루묘지문에 보이며 5세기 전반에 해당한다.

名)을 분석해보았을 때, 적성비에서 보이는 이들은 관등이 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필자는 이것을 관등명이 아닌 인명을 수식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함안목간의 奴人은 그 기재방식이 적성비의 小女, □子. 女, 小子와 비슷함을 알 수 있다. 또한 奴人을 뒤에 나오는 毛利文과 연관지우는 해석은 31번이나 2006-27번, 2007-53번에 의해서도 약간 의문이 간다. 33번의 ‘仇利伐 肪谷村 仇札支負’에서는 노인이 표기되어 있지 않고 부와 관련된 인명만 나오고 있어, 노인을 뒤에 나오는 인명과는 관계가 없고 앞서 나오는 인명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여지를 준다. 즉 奴人은 앞의 인명과 관련해서 그 인명을 수식하거나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해서 ‘仇利伐 仇陁 知一伐奴人毛利文負’을 다시 해석하면, 노인은 모리문이 아닌 구타지와 관련되므로 구타지는 일벌관등 즉 8위에 해당하는 외위를 가진 인물이 된다. 고신라 금석문에서 8위에 해당하는 일벌은 지방의 수장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관등이다. 따라서 노인을 피정복 하층계층이거나 종속적 사노로 볼 수는 없게 된다.

고신라 금석문에서 奴人이 나오는 예를 찾아보면 울진봉평비가 있다. 울진봉평비에 나타난 ‘奴人’에 관해 살펴보면 ‘別教今居伐牟羅南彌只 本是奴人□是奴人’에서 奴人이 2번 나오고 ‘人備土鹽王大奴村公值□其餘事鍾種奴人’에서도 ‘奴人村 種種奴人’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석에는 많은 연구자가 노인을 신라에 정복된 하층민으로 인식하고 거벌성(居伐城)과 남미지성(南彌只城)에서 반란 혹은 실화를 문책하여 마을과 주민들을 노인법에 의해 피정복하층으로 강등시키고 그 책임자를 벌주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의견을 따를 경우 남미지성과 거벌성의 주민에게 내리는 벌칙의 하나로써 노인법(奴人法)을 따르는 것이 되기에 때문에 ‘奴人’이란 것이 비천한 신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반해서 김창호는 고신라 금석문연구⁶⁰⁾에서 법흥왕이 524년 두 성을 치러 갈 때 거벌성과 남미지성의 사람들이 소금과 그 밖의 도움을 준 것에 대한 보상으로 여러 가지 노인법(種種奴人法)을 내린 것으로 판독하여 전혀 다른 의견을 제시 하였다. 즉 지방민(남미지성과 거벌성)의 도움으로 두 성을 정복 하였으므로 그 보상으로 도움을 준 지방민에게 노인법을 수여하

60) 김창호, 2007, 『고신라금석문 연구』, 서경문화사.

여 여러 가지 노인법 [種種奴人法] 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은 그 전보다는 좋아진 상태를 나타내는 의미가 내포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필자는 노인이 노비(奴婢)의 신분이나 당시의 하층계층 혹은 상대에게 자신을 낮추는 겸양의 표현 등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 負

이용현은 負(사진13)를 소출단위로써 짊어지는 한 짐으로 파악 하였다⁶¹⁾. 박종익은 명적으로 奴人과 대칭되는 신분으로 파악하다가 2007-E 목간의 발골로 이용현의 의견과 같이 하였다. 즉 2007-31번(仇利伐仇陁知一伐奴人毛利文負)을 일별관등을 가진 仇陁知가 하인 毛利文으로 하여금 짐을 지고 왔다고 해석 하였고 또 이를 근거로 仇利伐을 짐을 지고 올 정도로 가까운 곳으로 파악하기도 하였다⁶²⁾.

負는 (2, 36, 37, 38). (6, 33, 35) (17), (57)은 각기 다른 모양을 묵서되어 있다(사진13). 57번은 奴人에 해당하는 인명 없이 인명에 이은 負만 있고, 2007-41(□卽□□/居利負)로 앞뒤에 2명의 인명과 負만 있다(표5). 2번(甘文城下麥甘文本波□□負)에도 奴혹은 奴人이 없고 17번 목간은 촌명과 負만 가지고 있다. 특히 57번(弘帝□利負) 목간은 형태가 완형이고 인명과 負는 구리별목간과 같은 간격을 가지고 있고 負자 또한 분명하게 형성되어 있어서 구리별 목간이 분명해 보이지만 구리별이나 노인이 없이 인명과 부만으로 이루어져 있다(사진 15). 이와 같은 정황들로 볼 때 負가 꼭 구리별과 관계가 있다거나 奴人과 대칭되는 신분이나 물품량인 짐으로 파악 하는 것은 근거가 희박하다. 이처럼 奴人이나 奴가 없이 人名과 負만으로 형성되거나 구리별과 관계없이 負가 기재되고 있는 것을 참고해서 2007-31번의 ‘仇利伐仇陁知一伐奴人毛利文負’를 다시 해석해보면 奴人신분으로 一伐관등을 가진 仇陁知와 負의 신분을 가진 毛利文으로 2명의 인명으로 해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負가 奴人에 대칭되는 신분이고 짐이나 물품 량을 표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독자적으로 인명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지위나 신분 같이, 인명을 보완해 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따라서

61) 이용현, 2004, 「함안성산산성출토목간」 『한국의 고대목간』,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62) 이경섭, 2005, 「성산산성출토목간의 제작지와 기능」 『한국고대사연구』 35.

신라 인명표기방식에 있어서 마지막에 해당하는 관등명 뒤에 앞에 열거된 인명표기내용을 보완하는 의미를 가진 奴人이 하나 더 추가 될 수 있으며 負 또한 人名에 대한 이와 동일한 표현방식일 가능성이 높다. 이것으로 신라인명표기는 인명 다음에 꼭 관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관등 다음에 부가적으로 奴人이 오거나 負(함안목간) 혹은 적성비에서처럼 小女, 小子, 女 등이 인명 뒤에 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함안목간의 내용분석 결과 필자가 의문을 가진 점은 이 시기 이 지역을 다룬 문헌(특히 『일본서기』)에는 가야와 왜에 관한 기사 비중이 적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가야와 왜에 대한 목간의 내용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V. 목간의 성격

1.연대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함안 성산산성출토목간의 연대는 여러 연구자의 견해가 있으나 대부분은 6세기 후반 경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삼국사기』에 의한 함안의 소삼정 설치시기(544년)와 『일본서기』 권19 흠명천황 22년조(561년)에 ‘신라에서 아라의 파사산에 일본을 대비하여 산성을 쌓았다’ 하는 산성축조시기(561년)를 그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목간 집중 출토지인 32-29층(사진 3, 5번)이 성벽 기반토 아래에 위치하기 때문에 목간 출토지는 성을 쌓기 전에 축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목간은 성벽공사 이전에 폐기된 것이 되므로 성벽 축조와 상관이 없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따라서 『일본서기』나 『삼국사기』에 의하여 6세기 후반을 목간의 제작시기로 단순화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해당하는 금석문으로 연대비정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표 6〉 고신라 금석문의 외위형성 과정

외위	냉수리비	함안목간	봉평비(524)	명활산성작성비(551)
1				
2				
3				
4				
5				
6	干支	上千支		
7			下干支	下干支
8		一伐	一伐	一伐
9		一尺	一尺	
10				波一
11			阿尺	阿尺

먼저 목간의 상한을 밝혀보고자 한다. 함안목간 2007-61번 買谷村物禮利/ 玆玆于稗石, 2006-7 買谷村古光玆玆于稗石의 인명에서 확인되는 ‘玆’는 영일冷水里碑의 인명에서 玆夫智, 德智, 暮玆智, 玆申支, 玆利의 5

회가 확인 되고 있다(사진 16). 그러나 이 ‘猪’는 냉수리비에만 나타나고 냉수리비 이후로 연대가 비정되는 고신라금석문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상위(上位)의 관등이 먼저 형성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로 그 종류가 많아지는 고신라 금석문의 예로 보면, 냉수리비 인명편에는 外位 명이 7위에 속하는 干支 이외에는 없는데 비해서 함안목간에서는 12위上 干支, 8위一伐, 9위의 一尺이 있으므로 함안 목간은 냉수리비보다 빠를 수는 없다⁶³). 그러므로 함안목간의 상한은 냉수리비성립 이후의 어느 시점이 된다. 냉수리비의 편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문헌사학자들은 『삼국사기』에 의해 503년으로 편년하고 있지만, 二王을 거친 냉수리비 주인공인 절거리(節居利)의 나이와 왕(王)으로 호칭되고 매금(寐錦)으로 호칭되지 않는 점에서 443년의 연대비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세기말까지 함안 목간의 상한이 도달 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⁶⁴. 다음으로 함안목간의 하한(下限)을 살펴보면, 울진 봉평비의 건립시기가 하한이 됨을 알 수 있다. 봉평비는 5위의 太阿干支부터 17위의 造位까지 10종류의 京位와, 7위의 下干支부터 11위의 阿尺까지 4종류의 外위가 발견된다. 따라서 하한은 524년으로 볼 수 있고, 상한은 503년 혹은 443년으로 추측 할 수 있다(〈표 6〉 참고). 따라서 이러한 연대비정과 앞서 고고학적인 목간 출토지에 대한 발굴성과는 함안목간의 내용을 성산산성의 축조나 성산산성의 운영에 따른 공진물 수납과 연관시키기는 어렵게 하고 있다

2. 용도

함안목간의 용도에 대한 선학들의 견해를 기재내용과 제작방식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필자의 견해를 피력하고자 한다. 이용현⁶⁵)은 하찰기능, 김재홍⁶⁶)은 문서(文書)목간과 물품(物品)목간으로 분류하였다. 전덕재⁶⁷)

63) 주보돈, 2000, 「한국고대 촌락사연구의 진전을 위하여-신라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의 지방통치와 촌락』, 제9회 한국고대사학회 하계세미나, 한국고대사학회.

64) 김창호, 2007, 「고신라 금석문연구」 『서경문화사』, pp. 141-142.

65) 이용현, 2004, 「함안성산산성출토목간」 『한국의 고대목간』,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66) 김재홍, 2001, 「신라 중고기 촌제의 성립과 지방사회구조」, 서울대학교대학원 국사학과문학 박사학위논문

67) 전덕재, 2007, 「함안성산산성목간의 연구현황과 쟁점」 『한국고대목간과 동아시아세계의 문화교류』 한국목간학회 제1회 국제학술대회

는 하찰용(下札用), 검수용(檢數用), 명적용(名籍用)으로 보았고, 박종익은 발굴 당사자로서 현지 제작설을 제기하면서 패류목간을 관등으로 파악하고, 구리벌목간의 부(負)를 노(奴)와 대비되는 신분(身分)으로 보아 명적 설(名籍說)을 제기 하였다⁶⁸⁾. 평천남⁶⁹⁾은 성산산성에 반입된 稗와 보리, 소금 등에 붙은 부찰(付札)로 보아서 징세체계(徵稅體系)의 근거로 파악하였고, 이성시⁷⁰⁾는 목간의 사람들은 지역의 수장이며 피나 소금 등의 균량을 성산산성으로 반입하였다고 하여 하찰로 파악하였으며 동시기(同時期)에 이용되고 폐기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하찰은 신라의 지방통치를 위한 문서행정이며 성(城)이나 촌(村)의 주민과 역역(力役), 공부(公簿)의 실상을 파악 할 수 있다고 하여 6세기 중엽 경에 명적(名籍)을 작성하고 주민의 노동징발(勞動徵發)과 과세(課稅)를 실시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제작 방식에 따른 견해에 의하면 박상진⁷¹⁾은 수종을 분석하여 함안목간은 대량으로 한꺼번에 만든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몇 개씩 만든 것으로 보았으며 조잡한 가공으로 볼 때 목간 소유자의 신분이 그리 높지 않았을 것으로 파악하였다. 하시모토 시게루⁷²⁾는 목간에 수(樹)나 수피(樹皮)가 남아 있는 점을 들어 작은 나뭇가지(직경 2-3cm)로 제작되었다고 파악하고 목간을 먼저 만들고 글씨를 쓴 것으로 보면서 서사자(書事者)와 제작자(制作者)가 다를 가능성을 제시하고 하단부에 구멍이 있는 목간 중에서 28호 목간처럼 구멍을 피해서 쓴 것은 최소한 구멍을 뚫은 후에 문자를 쓴 것으로 파악하고, 30호 목간은 홈이 있는 부분까지 글씨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글씨를 쓴 다음 짐에 매달았으며 먼저 끈으로 묶은 하찰을 물품에 붙인 다음 글을 쓴 것이라 하였다. 또한 평활하게 조정된 면에 글이 쓰이지 않은 것은 서사자와 목간의 제작자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며 목간은 산성에 납입된 시점에 물품에서 떼어 폐기한 것으로 보고 하찰로 파악하고 있다

68) 박종익, 2007, 「신라중고기 촌제의 성립과 지방사회 구조」 『함안성산산성출토목간의 의의』, pp. 34-35.

69) 平天南, 2003, 『古代地方木簡의 研究』, 吉川弘文館

70) 이성시, 2005, 「조선의 문서행정-6世紀의 新羅-」 『文字와 古代日本』 吉川弘文館

71) 박상진, 2004, 「성산산성출토목간의 수종」 『한국의 고대목간』 p 414

72) 橋本 繁, 2007, 「함안성산산성목간의 제작기법」, 『함안산성출토목간의 의의』 p.48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

따라서 上記의 기재내용과 제작방식에 따른 선학들의 연구 성과를 정리해보면 모두 하찰과 명적용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명적은 이미 앞장의 내용분석에서 패에 대한 설명 중에 언급하였듯이 그 근거를 상실 하였다고 본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선학들이 동의하고 있는 하찰은 가능한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하시모토 시게루⁷³⁾가 말한 것처럼 물품을 넣은 가마니에 부착된 목간에 대고 목서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납입된 시점에 하찰로 부착된 목간을 떼어서 폐기시켰다면 목간이 출토된 위치와 목간이 사용되고 폐기된 시기에 있어 문제가 생긴다. 평천남⁷⁴⁾의 견해 역시 목간들이 성곽의 기반토보다 하층에서 일괄 출토되는 것으로 볼 때 성산산성의 축성과 수성에 관계된 공진물로는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목간은 성벽이 축조되기 이전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간에 기재된 물품들은 산성축조 이전에 반입되어진 것이므로 산성축조와는 상관이 없다. 설사 공진 물에 부착된 하찰로 보더라도 물품명이라고 파악 되는 것은 대부분 패로 되어 있고, 패를 말의 사료라는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함안산성의 공진물은 거의가 말 사료가 되는데 이것은 목간에 쓰인 지명을 감안한다면 경상북도 전역에서 말 사료만을 공급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규모의 기병의 흔적이나 말 사육시설이 발견되지 않고는 주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함안 목간에 대한 필자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함안목간에서 내용파악이 가능한 목간(171점) 중에서 물자이동을 위한 하찰로 파악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날짜표기가 있는 목간이 한 점도 없고, 물품명이나 수량이 보이지 않는 목간(79점), 지명이 보이지 않는 목간(51점)이 있고 대부분의 하찰 목간에서 보이지 않는 인명은 그의 모든 목간에서 나타나고 있고, 지명과 물품명이 없이 인명만 보이는 목간(22개)도 있다. 이러한 점들은 하찰목간으로 보기에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하찰목간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수량, 물품명, 날짜표기 중 한 개 이상이 표기 되지만 함안 목간에서는 이들이 생략되거나 아예 표기되지 않고 있어서 하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그 제작

73) 橋本 繁, 2007, 「함안성산성목간의 제작기법」, 『함안산성출토목간의 의의』 p.48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

74) 平天南, 2003, 『古代地方木簡의 研究』, 吉川弘文館

방법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미완성의 목간, 붓과 도자, 저습지 내에 두텁게 압착된 치목 편, 동일하게 묵서한 목간, 묵서가 없는 목간(37개), 연습의 흔적이 남아 있는 목간 등은 제작지가 성산산성임을 보여주고 있다⁷⁵⁾. 그리고 산성으로 공진물이 반입될 때 물품에 붙어 있던 하찰이라면 도착되는 그때그때 폐기되므로 일괄 폐기가 힘들다. 그런데 함안 목간은 동일한 종류의 목간이 한꺼번에 폐기된 채 출토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묶기홈이 아래쪽에 위치하는 것 역시 하찰로 매달았을 경우 글씨가 거꾸로 보이기 때문에 하찰로는 적당하지 않다. 이러한 경향은 안압지 등에서 발굴된 하찰목간이 전부 묶기홈이 위쪽에 위치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제작기법이나 형태와 내용의 분석 결과 결국 함안 목간은 하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함안 목간의 용도에 대해서 달리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함안목간의 가장 큰 기재방식의 특징은 인명은 생략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과 하찰에서는 거의 빠지지 않는 입고일이나 혹은 출고일로 볼 수 있는 날짜가 한 점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명이 중요하고 날짜는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어디에서 언제 출발하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하찰이기보다는 누가 납부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세정 혹은 공납장부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원지명이나 예속명, 물품명, 그리고 물품 량이 생략된 목간이 있는데 이것은 지역별, 물품별 등으로 구분지어 묶어서 보관되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한꺼번에 폐기된 채 발굴되고 있는 것은 종이에 옮겨 쓰거나 시기가 지나서 더 이상 목간이 장부로서의 역할이 필요 없게 되면 모아서 동시에 폐기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필자는 함안목간을 추정사용법(사진17)과 같이 사용할 경우, 보관 중에도 내용을 검토하거나 수정 및 첨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묶기홈이 상부가 아닌 하부에 위치하는 것이 편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묵서가 묶기홈의 반대쪽 끝에서부터 시작(사진 18)하고 가능하면 묶기홈까지는 이르지 않도록 묵서한 것은 묶은 상태에서도 내용을 파악하거나 묵서하거나 수정을 가 할 때 편리하기 때문이다. 상기(上記)의 제(諸)요소로 볼 때 함안

75) 박종익, 2007, 「함안성산산성 발굴조사와 출토목간의 성격」 『함안성산산성출토목간』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pp174,175.

목간의 용도는 세정 혹은 공납을 위한 장부일 가능성을 배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목간의 보관방법은 원지명은 있으나 예속지명이 없는 것, 인명만 있는 것, 물품명이 없이 물품량(石)만 있는 것, 二石, 一石이 없이 물품명만 기재된 것 그리고 인명 이외의 다른 것은 생략된 것 등으로 보아 묶기함에 끈을 묶어서 집단별로 혹은 내용별로 보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집단이나 내용별로 분류가 가능한 장부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했다고 보아진다. 하찰은 개개의 물품에 일일이 부착되기 때문에 지명이나 물품명 등을 생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石, 一石, 稗, 稗石 등 모두 동일한 양임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일일이 명시해 놓은 점이다. 만약 하찰이라면 같은 양이나 같은 물품이 들어 있는 곳(가마니정도로 추정됨)에 구태여 동일한 양과 품목을 일일이 기록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장부는 나중에 물품이 납부유무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같이 일일이 목서를 해야 한다. 또, 목간이 일괄폐기 되어 출토되는 것이나 제척축이 공반되어 출토된 것으로 볼 때 이 당시 귀한 종이를 아끼기 위해 먼저 목간을 이용하여 내용을 정리한 후 종이에 옮겨 쓰고 필요가 없어진 목간을 일시에 폐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함안 목간에서 나타나는 양(量)의 표현이 한 두 가지 밖에 없는 점과 稗石이 대부분이라는 특징은 그 당시 피를 기준으로 가구(家口)나 개개인에 따른 세액(稅額)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하여 인두세와 같은 맥락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稗, 稗一石 등의 표기방식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稗가 주로 나타나는 것은 당시에 피가 화폐처럼 경제적 단위로 사용되었으며⁷⁶⁾, 날짜는 없고 지명이나 물품명이 생략되어 있는 것은 이들 장부가 동일 량(同一量)이나 품목(品目) 또는 동일지명(同一地名)별로 함께 묶여있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발굴성과로만 보았을 때 함안목간은 물품의 하찰로 볼 수 없고, 세정(稅政)에 관한 문서나 장부 등으로 파악될 가능성이 있다.

76) 지금까지 5-6세기의 신라에서 사용된 화폐가 발견된 예가 없다.

VI. 결론

함안목간을 출토지의 분석에 의하면 목간 출토지는 자연퇴적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며 성곽보다 하층에 목간출토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목간출토지 형성이 성곽의 축조시기 보다 앞선다. 그러므로 목간을 성산산성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으며 성곽축조 이전에 구조물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보았다. 이것은 목간출토지 아래에 존재하는 울타리시설과 목간집중출토지의 식물 유기층 그리고 출수구의 위치 등에서 그 가능성이 보인다.

제작기법, 제작지, 형태와 내용의 분석에 의하여 하찰이 아니고 공진물을 수납하기 위한 세정장부일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다. 내용의 분석에서 날짜가 없고, 인명이 전부 기재되고 있는 점, 하부에 절입부가 있는 형태, 그리고 현지에서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은 하찰로 보기 힘든 점들이다. 지명에서 함안지역이 보이지 않는 점이나, 기재내용에서 지명이나 물품명이 생략되고 인명이 중요시 되는 점에서 볼 때 세정장부로 추측해 보았다.

함안목간의 연대는 ‘**𠄎**’와 고신라 인명표기법에 의한 외위명의 형성방식에 의하여 5세기 말-6세기 초로 연대를 비정하였다.

기존의 직명, 부명, 인명, 관등명 다음에 노인 혹은 노(奴)가 더 부가될 가능성과 인명 뒤에는 부(負)가 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다.

세정장부일 가능성을 추측하여 조세 환산기준을 패(稗)로 한 것으로 볼 때 경제 환산(經濟 換算)의 단위로 패(稗)를 사용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보았다.

목간의 지명들이 함안지역으로 짐작되는 지명은 나타나지 않고 전부 낙동강 상류지역을 지칭하고 있으며 이것은 이미 정치적으로 신라의 지배체제에 완전히 편입된 함안지역과 아직 지배체제에 완전하게 편입되지 않은 낙동강 상류지역의 세정이 달랐을 가능성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함안의 세정장부는 서라벌에서 작성하였거나 장부제작을 목간이 아닌 종이로 했을 가능성이 있고(이것은 목간과 함께 제첩축이 출토되어서 이를 뒷받침 한다), 낙동강상류지역의 세정장부는 함안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하였으며 목간으로 세정장부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으로 이 시기(5세기말-6세기 초) 신라가 함안을 거점으로 삼고 낙동강 상류지역을 지배영역으로 확대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함안목간에 나타나는 지명은 신라가 낙동강유역을 언제, 어떻게 지배하였는지를 밝히는 기초자료가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요약하면 함안목간의 연대는 성곽축조시기와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561년경으로 볼 수 없고 고신라 금석문의 인명표기법을 근거로 그 상한은 영일냉수리비를, 하한은 울진 봉평비의 건립시기로 비정하였다. 용도는 묶기흙과 제작지 등으로 보아 하찰이 아닌 세정장부일 것으로 파악하였다. 목간에 나타난 지명에 의하여 신라의 함안(낙동강 하류)지배시기와 낙동강 상류의 진출 시기를 추측할 수 있었다. 그리고 고신라 금석문의 인명표기방법에 재고의 여지가 있음을 제기하여 보았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이 점차 고착되어가는 함안목간의 용도와 연대에 대한 재고의 여지를 만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참고문헌

- 고경희, 1993, 『신라월지출토제명유물에 대한 명문연구』 동아대학교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 고광의, 2007, 「6-7세기 한국고대목간의 서체」 『한국고대목간과 고대 동아시아세계의 문화교류』, 한국목간학회 제1회 국제학술대회.
- 鎔野和己, 2004, 「일본고대의 목간」, 『한국의 고대목간』.
- 橋本繁, 2004, 「金海出土『論語』木簡について」 『(早稻田大學朝鮮文化研究所主催シンポジウム)韓國出土木簡の世界』.
- _____, 2004, 「함안성산산성목간의 제작기법」 『함안성산산성출토 목간 자료집』,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6, 「함안성산산성 11차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
- 近藤浩一, 2004, 『부여 능산리 나성 축조목간의 연구』, 충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욱, 2007, 「고대한국목간에 보이는 석독표기에 대하여」, 『한국고대목간과 고대 동아시아세계의 문화교류』, 한국목간학회 제1회 국제학술대회.
- 김재홍, 2001, 『신라중고기촌제의 성립과 지방사회구조』, 서울대학교대학원 국사학과 문학박사학위논문.
- 김창석, 2001, 「황남동 376 유적 출토 목간의 내용과 용도」 『신라문화』 제19집,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 김창호, 1992, 「이성산성출토의 목간 연대문제」 『한국상고사학1보』, 제10호, 한국상고사학회.
- _____, 1998, 「함안성산산성 출토목간에 대하여」 『함안성산산성』,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 _____, 2007, 「고신라 금석문연구」, 서경출판사.
- 박기종, 2006, 「한국고대의 노인과 부곡」 『한국고대사학회』.
- 박상진, 2000, 「출토목간의 재질분석-함안 성산산성 출토목간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19, 서경문화사.
- 박종익, 2000, 「함안성산산성 발굴조사와 목간」 『한국고대사연구』 19, 한국고대사학회. 서경문화사.
- _____, 2002, 「함안 성산산성 출토목간의 성격검토」 『한국고고학보』 48, 한국고고학회.
- _____, 2007, 「신라중고기 촌제의 성립과 지방사회 구조」 『함안성산산성출토목간의 의의』.
- 박중환, 2002, 「부여능산리 발굴목간 예보」 『한국고대사연구』 28, 한국고대사

- 학회, 서경문화사.
- _____, 2007, 『백제 금석문 연구』, 전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현숙, 1996, 「공남지 출토 백제목간과 왕도 5부제」 『한국사연구』 92, 한국사연구회.
- 사계화, 2000, 「중국에서 출토된 위 진대 이후의 한문간지문서와 성산산성 출토목간」 『한국 고대사연구』 19, 서경문화사.
- 三上喜孝, 2007, 「일본고대목간의 계보」 『한국고대목간과 고대 동아시아세계의 문화교류』, 한국목간학회 제1회 국제학술대회.
- 손환일, 2004, 「함안성산산성 출토 목간의 서체에 대한 고찰」 『한국의 고대목간』,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 _____, 2004, 「경주지역 출토목간에 대한 석문」, 한국고대사학회자료실.
- 安部聰一郎, 2007, 「중국출토간독과의 비교연구-尼雅출토 한문간독을 중심으로」 『함안 성산산성출토목간의 의의』,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 윤선태, 1999, 「함안 성산산성 출토 신라목간의 용도」 『진단학보』 제88호, 진단학회,
- _____, 2000, 『신라통일기 왕실의 촌락지배-신라고문서와 목간의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대학원 국사학과 문학박사학위논문.
- _____, 2002, 「신라 중고기의 촌과 도-읍락의 해체와 관련하여」 『한국고대사연구』 25, 한국고대사학회, 서경문화사.
- _____, 2002, 「신라의 문서행정과 목간-첩식문서를 중심으로」 『강좌한국고대사』 제 5권, 재단법인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 _____, 2004, 「한국고대목간의 출토와 현황」 『한국출토목간의 세계』 조선문화연구소편.
- _____, 2006, 「한국 고대목간의 연구현황과 전망」 『‘목간’과 한국고대의 문자생활』, 한국역사연구회기획발표회, 한국역사연구회.
- _____, 2006, 「안압지 출토 문호목간과 신라 동궁의 경비」 『한국고대사연구』 44, 한국고대사학회, 서경문화사.
- _____, 2007, 「한국 고대목간의 형태와 분류」 『한국고대목간과 고대 동아시아세계의 문화교류』, 한국목간학회 제1회 국제학술대회.
- 윤용구, 2007, 「새로 발견된 낙랑목간-낙랑군 초원4년 현별호구박-」 『한국고대사연구』 46, 한국고대사학회, 서경문화사.
- 이경섭, 2003, 「성산산성목간의 신고찰」 한국역사연구회 고대사분과연구발표회 발표 요지문.
- _____, 2004, 「함안 성산산성 목간의 연구현황과 과제」 『신라문화』 제23집,

-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 _____, 2005, 「성산산성 출토하찰목간의 제작지와 기능」 『한국고대사연구』 37, 한국고대사학회, 서경문화사.
- _____, 2006, 「함안 성산산성 출토 제침축에 대하여」 『‘목간’ 과 한국고대의 문자생활』, 한국역사연구회.
- _____, 2007, 「함안 성산산성 출토 제침축과 고대 동아시아세계의 문서표지」 『역사와 현실』 제65호, 한국역사연구회.
- 이균명, 2007, 「중국간독류별개술-검술중한목간형제비교-」 『한국고대목간과 고대 동아시아세계의 문화교류』, 한국목간학회 제1회 국제학술대회.
- 이기동, 1979, 「안압지에서 출토된 신라목간에 대하여」 『경북사학』 제1집, 경북대학교 문리과대학사학과.
- 이도학, 1993, 「이성산성 출토목간의 검토」 『한국상고사학보』 제12호, 한국상고사학회.
- 이문기, 2005, 「안압지 출토 목간으로 본 신라의 궁정업무」 『한국고대사연구』 39, 한국고대사학회, 서경문화사.
- 이상준, 1997, 「경주월성의 변천과정에 대한소고」, 『영남고고학』 21, 영남고고학회.
- 이성시, 1997, 「韓國出土の木簡について」, 『木簡研究』 19, 목간학회.
- _____, 2000, 「한국목간 연구의 현황과 함안 성산산성 출토의 목간」 『한국고대사연구』 19, 한국고대사학회, 서경문화사.
- _____, 2005, 「古代朝鮮の文字文化-新羅の金石文」 『古代日本文字の來た道』,大修館書店.
- _____, 2005, 「朝鮮の文書行政-6世期の新羅-」 『文字と古代日本』, 吉川弘文館.
- 이성준, 2007, 「함안성산산성출토목간의 의의」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 이수훈, 2004,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의 패석과 부」 『지역과 역사』 제15호, 부경역사연구소.
- 이영훈, 2002, 「화랑세기에서의 노와 비-삼국시대 신분제 재론」, 『역사학보』 76.
- 이용현, 1999, 「한국출토목간의 세계」 『함안성산산성출토목간』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 _____, 2001, 「경주 황남동 376 유적 출토목간의 형식과 복원」 『신라문화』 제19집, 동국대학교신라문화연구소.
- _____, 2001, 「함안 성산산성 출토목간에 대한 종합적 고찰」 『한국고대목간

-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02, 「함안 성산산성 출토목간과 6세기 신라의 지방경영」 『동단학술 논문집』 제5집, 한국고고미술연구소.
- _____, 2003, 「경주안압지(월지) 출토목간의 기초적 검토-보고서분석과 넘버링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제101집, 국사편찬위원회.
- _____, 2006, 「8세기 중후반 신라 동궁주변-경주 안압지목간의 종합적 검토」 『‘목간’ 과 한국고대의 문자생활』, 한국역사연구회.
- _____, 2006, 『한국목간기초연구』, 신서원.
- _____, 2007, 「목간 발굴 30년-목간을 고고학한다는 것-」 『한국고대목간과 고대 동아시아세계의 문화교류』, 한국목간학회 제1회 국제학술대회.
- 이용현·김창석, 2002, 「경주 황남동 376 유적 출토목간의 고찰」 『경주황남동 376 통일신라시대유적』, 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박물관.
- 田中俊明, 1997, 「百濟後期王都泗泚をめぐる諸問題」 『각전직선생고희기념논문집』 1.
- 전덕재, 2001, 「신라 중고기 결부제의 시행과 그 기능」 『한국고대사연구』 21, 고대사학회, 서경문화사.
- _____, 2001, 「한국역사학계의 회고와 전망-한국사고대」 『역사학보』 21, 고대사학회, 서경문화사.
- _____, 2006, 「함안 성산산성 출토목간을 통해서 본 신라지방통치체제」 『‘목간’ 과 한국고대의 문자생활』, 한국역사연구회.
- _____, 2007, 「함안 성산산성목간의 연구현황과 쟁점」 『한국고대목간과 고대 동아시아세계의 문화교류』, 한국목간학회 제1회 국제학술대회.
- 井上直樹, 2000, 「韓國威安城山山城出土木簡の検討會」 『朝鮮史研究會會報』 139.
- 平川南, 2000, 「일본고대목간연구의 현상과 신시점」 『한국고대사연구』 19, 고대사학회, 서경문화사.
- _____, 2003, 『古代地方木簡の研究』, 吉川弘文館.
- _____, 2005, 「百濟と古代日本における道の祭祀-陽物木製品の検討を中心に-」 『百濟泗泚時期文化の再照明』,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 _____, 2007, 「목간연구의 시점과 전개」 『한국고대목간과 고대 동아시아세계의 문화교류』, 한국목간학회 제1회 국제학술대회.
- 조법중, 1986, 「한국고대의 노비연구-발생과 존재형태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朝鮮文化研究所, 2007, 『韓國出土木簡の世界』, 雄山閣.

- 주보돈, 1989, 「울진봉평비와 법흥왕대 울령 한국고대사연구-울진봉평비 신라비 특집호2」, 『한국고대사연구』. 한국고대사학회, 서경문화사.
- _____, 1991, 「이성산성 출토의 목간과 도사」 『경북사학』 제14집, 경북사학회.
- _____, 2000, 「함안 성산산성 출토목간의 기초적 검토」 『한국고대사연구』 19, 한국고대사학회, 서경문화사.
- _____, 2002, 『금석문과 신라사』, 지식산업사.
- _____, 2007, 「한국목간연구의 현황과 전망」 한국고대목간과 고대 동아시아 세계의 문화교류』, 한국목간학회 제1회 국제학술대회.
- 최맹식·김용민, 1995, 「부여 궁남지 내부발굴조사 개보-백제 목간 출토의의와 성과」 『한국상고사학보』 제20호, 한국상고사학회.

사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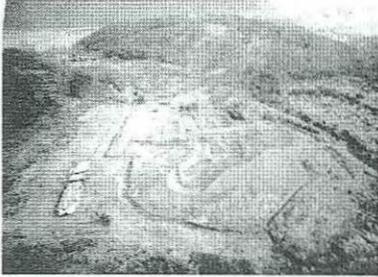


사진 1. 성산산성 조사원경(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6, 11차 발굴조사 현장설명회자료, p. 2, 사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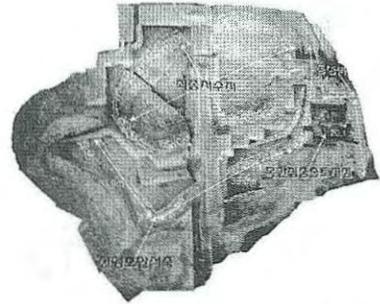


사진 2. 유구 분포도(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6, 앞의 책, p. 3, 사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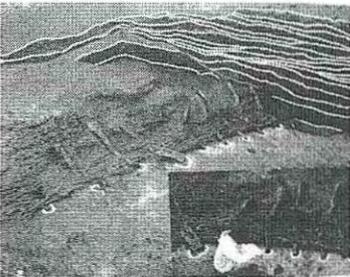


사진 3. 목간집중출토지점 하부의 울타리 시설(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6, 앞의 책, p. 3, 사진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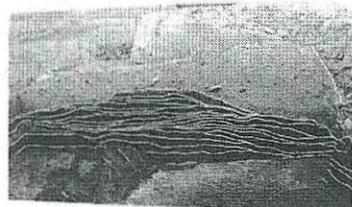


사진 4. 목간집중출토지점 북벽 토층(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07, 12차 발굴조사 현장설명회자료, p. 4, 사진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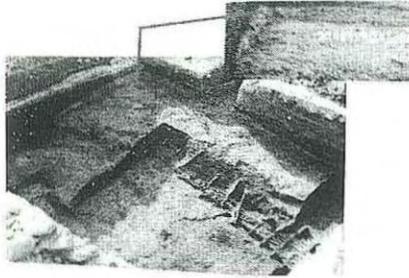


사진 5. 목간집중출토지점 Ⅱ층
(6층)(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07, 앞의 책, p. 4, 사진 6.)



사진 6. 구멍을 피한 목서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4, 『한국의 고대목
간』, p. 36, 28번 목간.)



사진 7. 30번 목
간(국립창원문화
재연구소, 2004,
앞의 책, p.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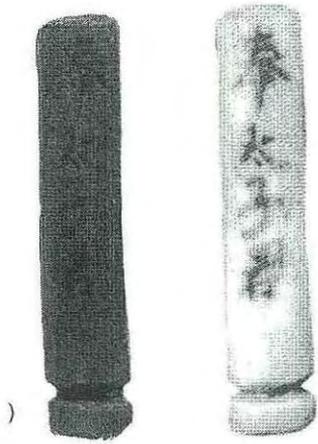


사진 8. 안압지 출토목간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4, 앞의 책, p. 2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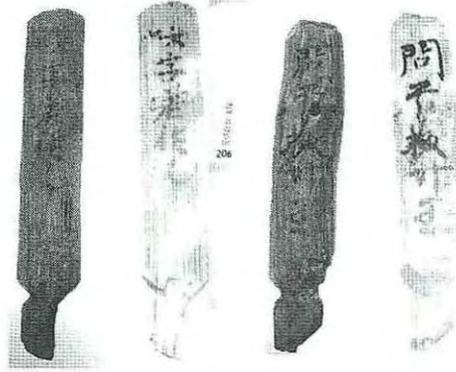


사진 9. 월성해자 출토목간(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4, 앞의 책, p. 206.)



사진 10. 등원궁 출토목간
(岸 俊男, 昭和 52年, 『宮都と木簡』, p. 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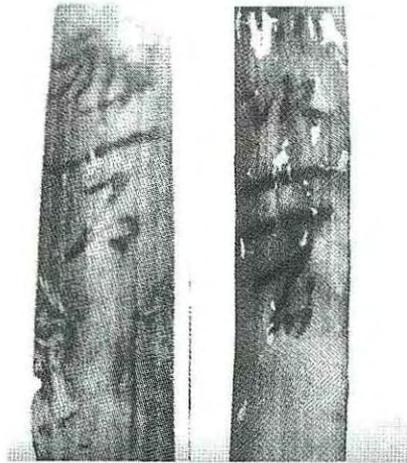


사진 11. 29번 목간(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07, 앞의 책, p.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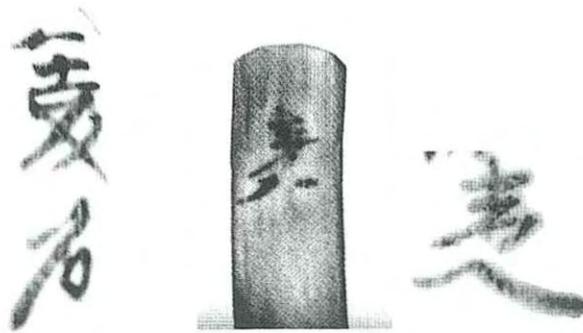


사진 12. 美자 목간(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4, 앞의 책, p. 66(左),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07, 앞의 책, p. 22(中),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4, 앞의 책, p. 66(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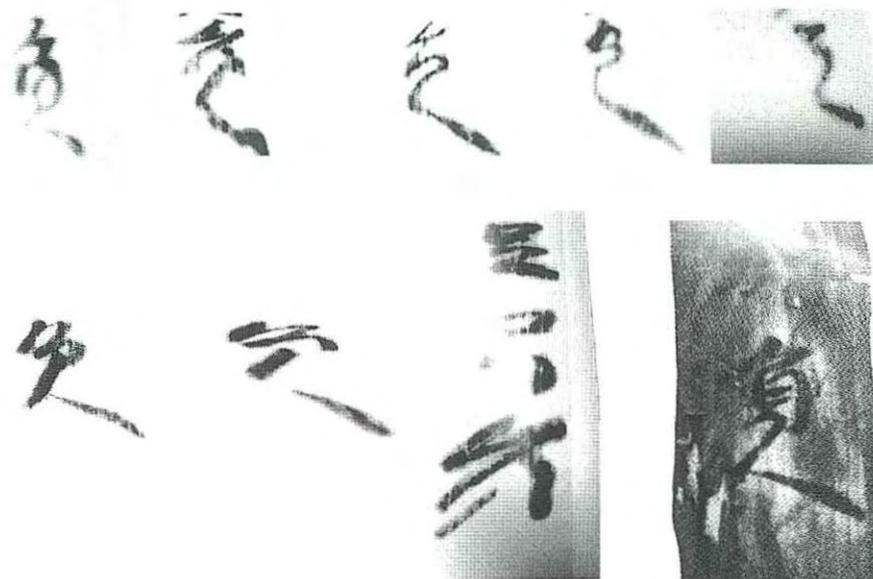


사진 13. 負자로 읽히는 글자들(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4, 앞의 책, p. 76, p. 54, p. 57, p. 53, p. 13, p. 46, p. 50, p.28(左로부터),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07, 앞의 책, p. 22.)



사진 14. 함안목간(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4, 앞의 책, p. 76,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07, 앞의 책, p.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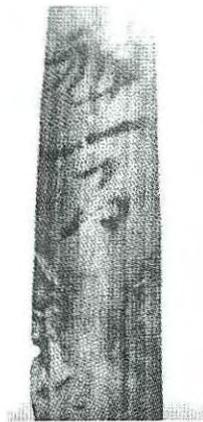


사진 15. 57번목간(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4, 앞의 책, p. 76)



사진 16. 냉수리비에서 확인되는 알수 없는 글자(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07, 앞의 책, p.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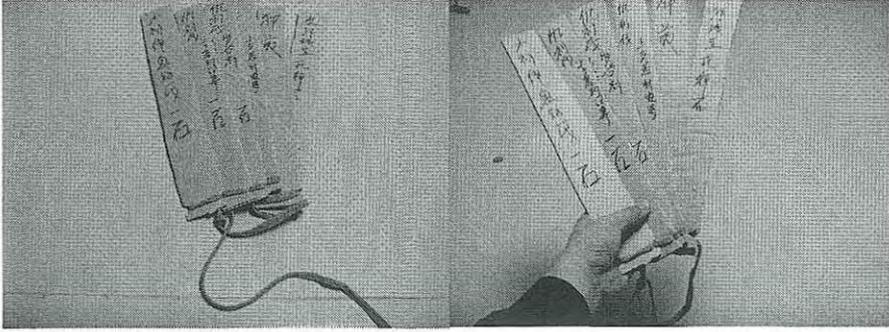


사진 17. 함안목간의 추정 사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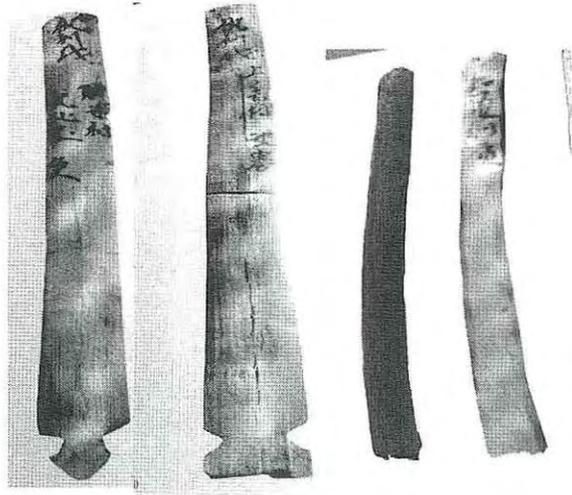


사진 18. 함안목간의 목서 방식(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4, 앞의 책, p. 46, p. 48, p. 76(左로부터).)

<별첨>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 판독문 일람표

번호	판독자	판독문
1	보고서 1	仇利伐 上多者村 / 乞利
	이경섭	仇利伐 上多者村 / 乞利
	이수훈	仇利伐 上多者村 / 乞利
	이용현	仇利伐 上多者村 / 乞利
	전덕재	仇利伐 上多者村 / 乞利
	고대목간(개)	仇利伐 上多者村 / 乞利
	필자	仇利伐 上多者村 / 乞利
2	보고서 1	甘文城下幾甘文卒波王(稗) / □村□利(兮)□
	이경섭	甘文城下幾甘文卒□□ / □村利□兮□
	이수훈	甘文城下幾甘文卒波王□ / □□村(知)利兮負
	이용현	甘文城下幾甘文卒波□□ / □□村□利兮□
	전덕재	甘文城下幾甘文卒波王□ / □村□利兮負
	고대목간(개)	甘文城下幾甘文卒波王□ / □村□利分(負)
	필자	甘文城下幾甘文卒波王□ / □□村(知)利兮負
3	보고서 1	仇利伐 上多者村 波婁
	이경섭	仇利伐 上多者村 波婁
	이수훈	仇利伐 上多者村 波婁
	이용현	仇利伐 上多者村 波婁
	전덕재	仇利伐 上多者村 波婁
	고대목간(개)	仇利伐 上多者村 波婁
	필자	仇利伐 上多者村 波婁
4	보고서 1	仇利伐 仇隄 一伐 尒利□尒□□
	이경섭	仇利伐 □隄□一伐 尒利□一伐
	이수훈	仇利伐 仇隄(利)一伐 尒利□一伐
	이용현	仇利伐 □隄□ 一伐 尒利□一伐
	전덕재	仇利伐 仇隄 一伐 尒利□(一伐)
	고대목간(개)	仇利伐 仇隄 一伐 尒利□一伐
	필자	仇利伐 仇隄 一伐 尒利□ □□
5	보고서 1	仇利伐 □德知一伐奴人□
	이경섭	仇利伐 □德知一伐奴人塩
	이수훈	仇利伐 □德知一伐奴人塩
	이용현	仇利伐 □德知一伐奴人(塩)
	전덕재	仇利伐 □德知一伐奴人□
	고대목간(개)	仇利伐 □德知一伐奴人□
	필자	仇利伐 □德知一伐奴人□
6	보고서 1	王松烏多伊伐支□□支
	이경섭	王松烏多伊伐支□負支

	이수훈	王松烏多伊伐支走負支
	이용현	王松烏多伊伐支乞負支
	전덕재	王松烏多伊伐支走負支
	고대목간(개)	王松烏多伊伐支□(乃人, 負)支
	필자	王松烏多伊伐支 □ 負支
7	보고서 1	仇伐干好□村鬼部稗石
	이경섭	仇伐干好女村鬼尸稗石
	이수훈	仇伐干好財村鬼口稗石
	이용현	仇伐干好女村鬼ア稗石
	전덕재	仇伐干好□村鬼尸稗石
	고대목간(개)	仇伐干好□村鬼部稗石
	필자	仇伐干好□村 □ 部稗石
8	보고서 1	(及)伐(城)(秀)乃巴稗
	이경섭	及伐城□乃巴稗
	이수훈	及伐城秀乃巴稗
	이용현	及伐城□乃巴稗
	전덕재	及伐城秀刀巴稗
	고대목간(개)	及伐城秀刀巴稗
	필자	及伐城□乃 □ 稗
9	보고서 1	竹尸□乎ㄴ于支稗一
	이경섭	竹尸□乎ㄴ于支稗一
	이수훈	竹尸□乎ㄴ于支稗一
	이용현	竹尸□乎ㄴ于支稗一
	전덕재	竹尸□乎ㄴ于支稗一
	고대목간(개)	竹尸□乎ㄴ于支稗一
	필자	竹尸□乎ㄴ于支稗□
10	보고서 1	甘文牟波□村且(利)村伊竹伊
	이경섭	甘文牟波(居)□利村伊竹伊
	이수훈	甘文牟波(居)(尉)村且利村伊竹伊
	이용현	甘文牟波□村且利村伊竹伊
	전덕재	甘文牟波□□且利村伊竹伊
	고대목간(개)	甘文牟波□村且(利)村伊竹伊
	필자	甘文牟波□村且利村伊竹伊
11	보고서 1	鳥欣彌村人兮稗石
	이경섭	鳥欣彌村卜兮稗石
	이수훈	鳥欣彌村卜兮稗石
	이용현	鳥欣彌村卜兮稗石
	전덕재	鳥欣彌村卜兮稗石
	고대목간(개)	鳥欣彌村卜兮稗石
	필자	鳥欣彌村卜兮稗石

12	보고서 1	上(吟)乃村居利支稗
	이경섭	上谷乃村居利支稗
	이수훈	上(谷乃)村居利支稗
	이용현	上(吟)□村居利支稗
	전덕재	上谷乃村居利支稗
	고대목간(개)	上(吟)乃村居利支稗
	필자	上□ 乃村居利支稗
13	보고서 1	陳城巴兮支稗己
	이경섭	陳城巴兮支稗
	이수훈	陳城巴兮支稗
	이용현	陳城己兮支稗
	전덕재	陳城巴兮支稗
	고대목간(개)	陳城巴兮支稗
	필자	陳城巴兮支稗
14	보고서 1	大村伊息知一伐
	이경섭	大村伊息知一伐
	이수훈	大村伊息知一伐
	이용현	大村伊息知一伐
	전덕재	大村伊息知一伐
	고대목간(개)	大村伊息知一伐
	필자	大村伊息知一伐
15	보고서 1	...(家)村□□□
	이경섭	家村□□□
	이수훈	家成毛□
	이용현	□家村□□□
	전덕재	家村□□□
	고대목간(개)	家村□□□
	필자	家村□□利
16	보고서 1	言斯只元
	이경섭	言斯只一石
	이수훈	言斯只元
	이용현	言斯只元
	전덕재	言□只元
	고대목간(개)	言斯只元
	필자	言斯只元
17	보고서 1	前谷村 阿足只□
	이경섭	前谷村 阿足只□
	이수훈	前谷村 阿足只負
	이용현	□前谷村 阿足只□
	전덕재	前谷村 阿足只負
	고대목간(개)	前谷村 阿足只□

	필자	前谷村 阿足只□
18	보고서 1	…
	이경섭	稗
	이수훈	□□分只支稗
	이용현	□□□□支稗
	전덕재	□□□□支□稗
	고대목간(개)	□□□分只□□□
	필자	前□ 分只□ □
20	보고서 1	□□□□□(利)□ / 仇仍支稗(姜)
	이경섭	古陀伊骨利村(那) / 仇仍支稗麥
	이수훈	古陀□□利村(那) / 仇仍支稗發
	이용현	□□□□□利□ / 仇□支稗□
	전덕재	古陀伊骨利村□ / 仇仍支稗(麥)
	고대목간(개)	古(陀)□骨利村□ / 仇仍支稗(姜)
	필자	古陀伊骨利村(那) / 仇仍支稗(發.麥)
21	보고서 1	屈仇□村(完)曉 / 稗石
	이경섭	屈仇□□村 / 稗石
	이수훈	屈仇(佞)□村(曉)□□ / 稗石
	이용현	屈仇□□村□□□ / 稗石
	전덕재	屈仇□村□□ / 稗石
	고대목간(개)	屈仇□村(完)□ / 稗石
	필자	屈仇□□村□□□ / 稗石
22	보고서 1	夷□(支)□刑忒利□
	이경섭	□□支□那忒利知
	이수훈	夷財支土荊忒利(倉)
	이용현	夷(伐)支□那忒利知□
	전덕재	夷□支□刑忒利知
	고대목간(개)	夷□支□刑忒利□
	필자	夷珎支□那忒利□
23	보고서 1	爐上千支
	이경섭	知上千支
	이수훈	知上千支
	이용현	知上千支
	전덕재	知上千支
	고대목간(개)	爐上千支
	필자	知上千支
24	보고서 1	…村忒□利
	이경섭	…(村)忒□利
	이수훈	村忒□利
	이용현	(村)忒□利

	전덕재	(村)兪□利
	고대목간(개)	(村)兪□利
	필자	(村)兪□利
28	고대목간	古陀伊骨利村阿那衆智卜利古支 / 稗發
	이경섭	古陀伊骨利村阿那衆智卜利古支 / 稗發
	이수훈	古陀伊骨利村阿那衆智卜利古支 / 稗發
	이용현	古陀伊骨利村阿那衆智卜利古支 / 稗(發)
	전덕재	古陀伊骨利村阿那衆智卜利古支 / 稗(麥)
	고대목간(개)	古陀伊骨利村阿那衆智卜利古支 / 稗(麥)
	필자	古陀伊骨利村阿那衆智卜利古支 / 稗(麥)發
29	고대목간	古陀新村智利知一尺□村 / 豆兮利智稗石
	이경섭	古陀新村智利知一尺□村 / 豆兮利智稗石
	이수훈	古陀新村智利知一尺□村 / 豆兮利智稗石
	이용현	古陀新村智利知一尺□村 / 豆兮利智稗石
	전덕재	古陀新村智利知一(尺)□村 / 豆兮利智稗石
	고대목간(개)	古陀新村智利知一(尺)□村 / 豆兮利智稗石
	필자	古陀新村智利知一(尺)那村 / 豆兮利智稗石
30	고대목간	夷(津)支阿那…豆支 / 稗
	이경섭	夷(津)支阿那□□豆支 / 稗
	이수훈	夷(津)支阿那□□□豆支 / 稗
	이용현	夷(津)支阿那□□□□豆支 / 稗
	전덕재	夷津支阿那□□□豆支 / 稗
	고대목간(개)	夷(津)支阿那□□□□豆支 / 稗
	필자	夷(津)支阿那□骨只豆支 / 稗
31	고대목간	古陀一古利村末彡 / 毛眉次尸智稗石眉
	이경섭	古陀一古利村末(彡) / 毛(羅)次尸智稗石
	이수훈	古陀一古利村末彡 / 毛眉次尸智稗石
	이용현	古陀一古利村末彡 / 毛眉次尸智稗石
	전덕재	古陀一古利村末彡 / 毛□次尸智稗石
	고대목간(개)	古陀(一)古利村末□ / 毛眉次尸智稗石
	필자	古陀一古利村末那 / 毛眉次尸智稗石
32	고대목간	上□刀珍村 / □加□古乃□稗石
	이경섭	上□刀(珍)村 / 加古乃稗石
	이수훈	上□刀珍村 / 加古乃□稗石
	이용현	上□刀珍村 / □加□乃稗石
	전덕재	上□刀□村 / 加□□□稗石
	고대목간(개)	上□刀珍村 / 加古□□(子)(上)稗石
	필자	上□刀珍村 / 加古乃□稗石
33	고대목간	仇利伐 彤谷村 仇禮支負

	이경섭	仇利伐 彤谷村 仇禮支負
	이수훈	仇利伐 彤谷村 仇禮支負
	이용현	仇利伐 彤谷村 仇禮支負
	전덕재	仇利伐 彤谷村 仇禮支負
	고대목간(개)	仇利伐 彤谷村 仇禮支負
	필자	仇利伐 彤谷村 仇禮支負
34	고대목간	仇利伐 上多者村 波婁
	이경섭	仇利伐 上多者村 波婁
	이수훈	仇利伐 上多者村 波婁
	이용현	仇利伐 上多者村 波婁
	전덕재	仇利伐 上多者村 波婁
	고대목간(개)	仇利伐 上多者村 波婁
	필자	仇利伐 上多者村 波婁
35	고대목간	內恩知 奴人居助支負
	이경섭	內恩知 奴人居助支負
	이수훈	內恩知 奴人居助支負
	이용현	內恩知 奴人居助支負
	전덕재	內恩知 奴人居助支負
	고대목간(개)	內恩知 奴人居助支負
	필자	內恩知 奴人居助支負
36	고대목간	乃□□ 只(卽)智奴□□ 於□支
	이경섭	(仇利伐) 只□□奴□□ 於□支(負)
	이수훈	(乃)□□ 只(卽)智奴於□支負
	이용현	乃□□ □只(卽)智奴□□ 於□支□
	전덕재	仇利伐 只□□奴 □□支負
	고대목간(개)	(仇利伐) 只卽智奴 於□支(負)
	필자	仇利伐 只□□奴 □□支負
37	고대목간	內只次奴須禮支□□
	이경섭	內只次奴須禮支(負)
	이수훈	內只次奴須禮支負
	이용현	內只次奴須禮支□□
	전덕재	內只次奴須禮支負
	고대목간(개)	內只次奴須禮支(負)
	필자	內只次奴須禮支負
38	고대목간	比夕須奴 忒先□支□□
	이경섭	比夕須奴 忒先(利)支(負)
	이수훈	比夕須奴 忒先(利)支負
	이용현	比夕須奴 忒先□支負
	전덕재	比夕須奴 忒先□支負

	고대목간(개)	比夕須奴 尒先(利)支(負)
	필자	比夕須奴 尒先□支負
39	고대목간	鄒文比尸河村尒利牟利 / 후면목훈
	이경섭	鄒文比尸河村尒利牟利
	이수훈	鄒文比尸河村尒利牟利
	이용현	鄒文比尸河村尒利牟利
	전덕재	鄒文比尸河村尒利牟利
	고대목간(개)	鄒文比尸河村尒利牟利
	필자	鄒文比尸河村尒利牟利
40	고대목간	阿卜智村尒禮及一
	이경섭	阿卜智村尒禮及
	이수훈	阿卜智村尒禮得一
	이용현	阿卜智村尒禮及
	전덕재	阿卜智村尒□□
	고대목간(개)	阿卜智村尒及(一)
	필자	阿卜智村尒及(一)
41	고대목간	陳城巴兮支稗
	이경섭	陳城巴兮支稗
	이수훈	陳城巴兮支稗
	이용현	陳城□□兮支稗
	전덕재	陳城巴兮支稗
	고대목간(개)	陳城巴兮支稗
	필자	陳城巴兮支稗
42	고대목간	及伐城□□稗石
	이경섭	及伐城□□稗石
	이수훈	及伐城□□稗石
	이용현	及伐城□□稗石
	전덕재	及伐城豆禮稗石
	고대목간(개)	及伐城主□稗石
	필자	及伐城豆禮稗石
43	고대목간	陽村□尸只
	이경섭	陽村□□尸只
	이수훈	陽村□尸只
	이용현	陽村□尸只
	전덕재	陽村□□尸只
	고대목간(개)	陽村□尸只
	필자	陽村□□尸只
44	고대목간	上莫村居利支稗一
	이경섭	上谷□□居利支稗
	이수훈	上谷乃村居利支稗

	이용현	上谷乃居利支稗
	전덕재	上谷□村居利支稗
	고대목간(개)	上谷□村居利支稗
	필자	上□村居利支稗
46	고대목간	□□鄒波□□支
	이경섭	□□□□支
	이수훈	□□鄒波□□支
	이용현	□□鄒波□□支
	전덕재	□鄒□□支
	고대목간(개)	□□鄒波□□支
	필자	□□鄒波□□支
47	고대목간	加初智□須麥石
	이경섭	加初智(丙)□(麥)石
	이수훈	加初智□須麥石
	이용현	加初智□麥石
	전덕재	□初智□須麥石
	고대목간(개)	加初智南須麥石
48	필자	加初智□須麥石
	고대목간	殂鐵十之
	이경섭	(迫)鐵十六
	이수훈	殂鐵十之
	이용현	殂鐵十之
	전덕재	□鐵□□
49	고대목간(개)	殂鐵十之
	필자	殂鐵十之
	고대목간	...(石)...
	이경섭	□□□□
	이수훈	
	이용현	□兮□兄稗□□ / □□(石)□
	전덕재	□□□□
50	고대목간(개)	...
	필자	□□□□
	고대목간	□□□□□□
	이경섭	□□□□□□
	이수훈	□□□□(稗)(石)
	이용현	□□□□□□
	전덕재	□□□稗石
51	고대목간(개)	...
	필자	□□□□□□
51	고대목간	
	이경섭	□

	이수훈	□
	이용현	
	전덕재	□
	고대목간(개)	...
	필자	
52	고대목간	仇伐阿那舌只稗石
	이경섭	仇伐阿□舌只稗石
	이수훈	仇伐阿那舌只稗石
	이용현	仇伐阿那舌只稗石
	전덕재	仇伐阿那□只稗石
	고대목간(개)	仇伐阿□舌只稗石
	필자	仇伐阿□舌只稗石
53	고대목간	大村主航主人
	이경섭	大村主航麥
	이수훈	大村主航主人
	이용현	大村主航主人
	전덕재	大村主航□
	고대목간(개)	大村主航主人
	필자	大村主航麥
54	고대목간	鄒文□□村□拏□
	이경섭	鄒文□□村□拏□
	이수훈	鄒文□□村□拏□(波)
	이용현	鄒文□□村□拏□
	전덕재	鄒文□□村□□拏□
	고대목간(개)	鄒文□□□村□拏□
	필자	鄒文□□村□拏□
55	고대목간	...
	이경섭	
	이수훈	
	이용현	
	전덕재	
	고대목간(개)	...
	필자	...
56	고대목간	
	이경섭	
	이수훈	
	이용현	□□(兮)(村)□支稗□
	전덕재	□□□□□□
	고대목간(개)	...
	필자	□□□□□□
57	고대목간	弘帝沒利負

	이경섭	弘□□利負
	이수훈	弘帝沒利負
	이용현	弘帝沒利負
	전덕재	弘□□利負
	고대목간(개)	弘帝沒利負
	필자	弘帝沒利負
59	고대목간	□蜜ㄱ智私 / □利乃文菴支稗
	이경섭	□蜜ㄱ智私 / □利乃(文)菴支稗
	이수훈	□蜜ㄱ智私 / □利乃文菴支稗
	이용현	□蜜□智私 / □利乃文菴支稗
	전덕재	石蜜白智私 / □利乃□□支稗
	고대목간(개)	□蜜(ㄱ)智私 / □利乃文菴支稗
	필자	石蜜(ㄱ)智私 / □利乃文菴支稗
60	고대목간	巴珠兮城下□ / 巴珠兮村
	이경섭	巴珠兮城下□ / 巴珠兮村
	이수훈	巴珠兮城下□ / 巴珠兮村□
	이용현	□□兮城下 / □□珠兮村
	전덕재	巴珠兮城下 / 巴珠兮村
	고대목간(개)	巴珠兮城下□ / 巴珠兮村
	필자	(巴)珠兮城下□ / (巴)珠兮村
61+75 +90	고대목간	乃節(它)家□夫□鄒尺 / □稗石
	이경섭	乃節(它)家□夫□(鄒)只□ / □稗石
	이수훈	乃節它家□夫□鄒尺□ / □稗石
	이용현	乃節它家□夫□鄒尺□ / □稗石
	전덕재	乃節□□□夫□(村)只□ / □稗石
	고대목간(개)	乃節(七)家(城)夫鄒只□ / □稗石
	필자	乃節(七)家(城)夫鄒只□ / □稗石
62+66	고대목간	□□□支村 / □□稗石
	이경섭	□□□支村 / ...□稗石
	이수훈	支村 / □稗石
	이용현	□□□支村 / ...□稗石
	전덕재	支村 / □□稗石
	고대목간(개)	支村 / ...□稗石
	필자	支村 / ...□
63	고대목간	□(那)(稗)□□□ / 鄒
	이경섭	□(那)□□□ / 鄒(稗)
	이수훈	□(那)□□□ / 鄒(稗)
	이용현	□□(那)□□□ / □□鄒(稗)
	전덕재	□那□尸□ / 鄒稗
	고대목간(개)	□□□□□ / (鄒)(稗)

	필자	□那□尸□ / 鄒稗
64	고대목간	□伊伐支□□ / □□□(稗)石
	이경섭	伊伐支 / (稗)石
	이수훈	□伊伐支人□ / □□□(稗)石
	이용현	伊伐支 / 稗石
	전덕재	伊伐支□□ / 稗石
	고대목간(개)	□□支人□ / □可
	필자	□伊伐支人□ / □□□(稗)石
65	고대목간	卅六糸□ / □□□居
	이경섭	卅大糸□ / 居□□
	이수훈	卅六糸□ / (居)□□
	이용현	卅六糸□ / □□□
	전덕재	□□□ / □□□
	고대목간(개)	卅六糸□ / □□□□
	필자	卅大糸□ / □□□
67	고대목간	加禮□ / 刀稗□
	이경섭	加禮 / 刀稗
	이수훈	加禮□ / 刀稗
	이용현	加禮□ / 刀稗
	전덕재	加□ / 刀稗
	고대목간(개)	加禮 / 刀稗
	필자	加禮 / 刀稗
70	고대목간	千竹利
	이경섭	千竹利
	이수훈	千竹利
	이용현	千竹利
	전덕재	千竹利
	고대목간(개)	千竹利
	필자	千竹利
71	고대목간	利次稗石
	이경섭	利次稗石
	이수훈	利次稗石
	이용현	利次稗石
	전덕재	利次稗石
	고대목간(개)	利次稗石
	필자	利次稗石
72	고대목간	□一伐稗
	이경섭	□一伐稗
	이수훈	□一伐稗
	이용현	一伐稗

	전덕재	一伐稗
	고대목간(개)	一伐稗
	필자	□一伐稗
73	고대목간	伐稗石
	이경섭	伐稗石
	이수훈	伐稗石
	이용현	伐稗石
	전덕재	一伐稗石
	고대목간(개)	(伐)稗石
	필자	伐稗石
74	고대목간	及伐城只智稗石
	이경섭	(及)伐城只(利)稗石
	이수훈	及伐城只智稗石
	이용현	及伐城只智稗石
	전덕재	及伐城只智稗石
	고대목간(개)	及伐城只智稗石
	필자	及伐城只智稗石
E+76	고대목간	伐未知居兮
	이경섭	伐(未)知居兮
	이수훈	伐未知居兮
	이용현	伐未知居兮
	전덕재	伐只知居兮
	고대목간(개)	伐(未)知居兮
	필자	伐□知居兮
77	고대목간	須伐牽波居□知
	이경섭	須伐牽波居須知
	이수훈	須伐牽波居□知
	이용현	須伐牽波居□知
	전덕재	須伐牽波居須知
	고대목간(개)	須伐牽波居須知
	필자	須伐牽波居須知
78	고대목간	□村□□尠支
	이경섭	□村伐(失)尠支
	이수훈	□村□□尠支
	이용현	□□村□支
	전덕재	□村□□尠支
	고대목간(개)	□村□□尠支
	필자	□村伐□尠支
79	고대목간	伊伐支□利□稗一

	이경섭	□伐□□(利)□稗
	이수훈	伊伐支□利□稗一
	이용현	伊伐支□利□稗一
	전덕재	伊伐支□利□稗
	고대목간(개)	伊伐支□利□稗
	필자	伊伐□□□□
80	고대목간	及伐城□□稗石
	이경섭	及伐城□□稗石
	이수훈	及伐城□□稗石
	이용현	及伐城□□稗石
	전덕재	及伐城□□稗石
	고대목간(개)	及伐城□□稗石
필자	及伐城□□稗石	
81	고대목간	伊□□石
	이경섭	伊□□石
	이수훈	伊□□石
	이용현	伊□□石
	전덕재	伊伐稗石
	고대목간(개)	伊□□石
필자	伊□支石	
82	고대목간	□支
	이경섭	支
	이수훈	□支
	이용현	□支
	전덕재	□支
	고대목간(개)	□□支
필자	□□支	
83	고대목간	□
	이경섭	□□
	이수훈	□□
	이용현	召□伐
	전덕재	□□
	고대목간(개)	□□
필자	□□支	
84	고대목간	蒜尸及
	이경섭	蒜尸及
	이수훈	蒜尸子
	이용현	□尸及
	전덕재	麻尸支
	고대목간(개)	蒜尸子
필자	(麻.蒜)尸支	

85	고대목간	伊失兮村
	이경섭	伊失兮村
	이수훈	伊失兮村
	이용현	伊失兮村
	전덕재	伊失兮村
	고대목간(개)	伊失兮村
	필자	伊失兮村
86	고대목간	□鄒□□□
	이경섭	□鄒(加)(介)支石
	이수훈	盛鄒加□支石
	이용현	□鄒□□□
	전덕재	□鄒加(麥)石
	고대목간(개)	□鄒加□□石
	필자	□鄒加(麥)石
88	고대목간	□□□支□
	이경섭	□□□□拏□
	이수훈	□□□□拏□
	이용현	□□□拏□
	전덕재	□□□□拏□
	고대목간(개)	□□□□拏□
	필자	□□□□拏□
89	고대목간	兮利沙
	이경섭	支利沙
	이수훈	支利沙
	이용현	兮利沙
	전덕재	兮利□
	고대목간(개)	支利沙
	필자	支利沙
92	고대목간	□□支
	이경섭	兮□支
	이수훈	□□支
	이용현	□□支
	전덕재	□□支
	고대목간(개)	□□支
	필자	□□支
94	고대목간	...
	이경섭	(稗)一
	이수훈	
	이용현	□□
	전덕재	□
	고대목간(개)	

	필자	□□
95+45	고대목간	夷津阿那休智稗
	이경섭	(眞)(津)阿那休智稗
	이수훈	夷津阿那休智稗
	이용현	夷津阿那休智稗
	전덕재	夷津阿那休智稗
	고대목간(개)	夷津阿那休智稗
	필자	夷津阿那休智稗
97	고대목간	
	이경섭	
	이수훈	石
	이용현	石
	전덕재	□
	고대목간(개)	
	필자	□
B		村
C		仇伐
D		□史□
E		伐(76번 목간의 상부에 접합)

A Study on Haman Sungsan Fortress's Wooden tablets

Kwon, Byeong - sun

Department of Cultural Resources Studies
The Graduate School
Gyeongju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ang, Bong Won)

(Abstract)

This thesis is about the wooden tablets excavated from Haman Sungsan Fortress, located in the southern part of Korean peninsula.

The fortress has been excavated since 1992.

A great number of wooden tablets on which many Chinese characters are inscribed have been collected.

This thesis focuses on the chronology, manufacturing place and function of the wooden tablet.

Until present, it was confirmed that manufacture era were about AD.561 and these were used as name list of supplies. Even if the results of past research said like that, in this thesis assert the Haman wooden tablets' manufacture era is end of the 5c or early of the 6c because Haman wooden tablets were excavated at below of the castle wall and old Silla's stone slab's special character and old Silla's stone slab's change style in process of time.

and these were used as tax dovetail not a name list of supplies because groove's were in the lower position of wooden tablets and contents of the tablets were name-centered and were also not contain the date

this thesis can provide a clue about when and how Silla advance to the area of Nakdong river